

예술의 초대

Since 1992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OVER STORY

2024 부산오페라시즌 '나비부인'

COLUMN

아버지와 딸

반갑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신임 예술감독 홍석원

2024 8월 Vol.392

Madama Butterf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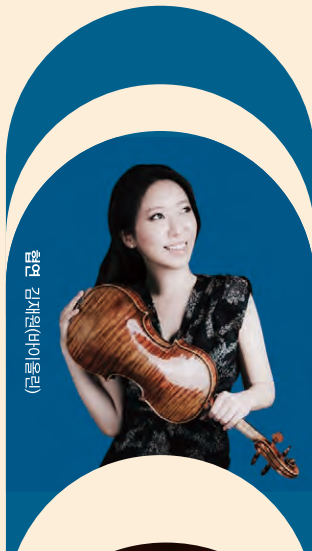
국제신문 창간 77주년 기념 음악회

The Sounds of Busan!

2024. 9. 8 | 일 | 7: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좌) 안재연 (지휘)



(상) 안재연 (바이올린)



(우) 안재연 (지휘)



(하) 안재연 (악기)



작곡 안재연



연주 국제신문교향악단 (KSD)

New HYBRID
& New WAVE

PROGRAM

한재연
대취타 주제에 의한 환상곡
Jae-Yeon Han
Daechwita Fantasy for Orchestra

차이콥스키
로미오와 줄리엣 서곡
P. I. Tchaikovsky
Romeo and Juliet Overture

왁스만
카르멘 판타지
F. Waxman
Carmen Fantasy

슈타우다허
'하루' 같은 인생 ... 외
M. Staudacher
Life As a Day

주최 K 국제신문 주관 KSD 국제신문교향악단 후원 동성모터스

입장권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예매처 인터파크 interpark 공연문의 051.500.5222

IV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yu-been
Kim*



플루트
김유빈
리사이틀

2024.8.28 WED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 5만원 | S 3만원

을숙도문화회관 K-POP 시리즈 공연

박완규



7. 23.(화)

테이



8. 23.(금)

소향



9. 20.(금)

지휘 홍희철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 주최·주관 | 을숙도문화회관 |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 관람료 | 1~3만원

| 관람연령 | 초등학생 이상

| 문의 | 051)220-5811~14

서부산권 문화의전당

을숙도문화회관

21st
21st ANNIVERSARY OF
EULSUKDO CULTURAL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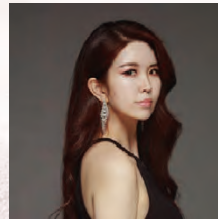
을숙도문화회관 K-POP 시리즈 공연

good bye SUM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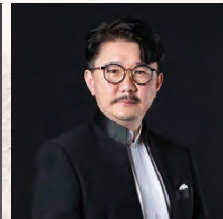
굿바이 썸머 콘서트



가수 테이



소프라노 박지은



바리톤 김창돈



Ari-클래식

2024. 8. 23.(금) 7:30PM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 주최 | 을숙도문화회관 | 주관 | Ari-클래식 | 관람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 | 입장연령 | 초등학교 이상
|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eulsukdo.saha.go.kr> | 문의 | 051)220-5811~4

매혹적인 퍼포먼스로
눈과 귀를 사로잡는 현악 5중주

유럽의 대표 재즈현악5중주 [볼로시] 내한 공연

"감히 단언컨대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 매리 앤 케네디, BBC
"놀라운 라이브 밴드인 VOLOSI는 모든 페스티벌의 초대 희망 목록에 올라 있다!" - 사이먼 브루튼, Songlines



VOLOSI

2024.08.17(토) 1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리켓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입장연령 7세 이상 관람가

|문의 부산시민회관 051)607-6000(ARS 1번)

|예매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interpark 티켓 1544-1555

예술의 초대 Since 1992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24. 8월호 Vol.392



Column 08 아버지과 딸

반갑습니다 10 부산시립교향악단 신임 예술감독 홍석원

세계의 콘서트홀 ⑯ 12 파리의 콘서트홀, 필하모니아 드 파리

Cultural Issue 16 '뮤지컬 본고장' 미국·영국 공략 나선 K뮤지컬

Cover Story 22 2024 부산오페라시즌 '나비부인'

Preview 28

문화가 화제 40 2024 부산비엔날레

Review 42

Program Guide 46

New Book 59



아버지와 딸

• 김성필 국립부경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교수



Father and Daughter(2000년, 출처: <https://www.imdb.com/title/tt0279079>)

얼마 전, 지인의 자제분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어린 딸과 함께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에 다녀온 적이 있다. 필자는 아직 초등학교인 철없는 딸을 품에 안은 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로 걸어가던 신부의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문득 잊고 있던 한 편의 애니메이션 작품이 머리를 스쳤다.

2001년 아카데미 최우수 단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한 <Father and Daughter(아버지와 딸)>는 네덜란드 출신의 영국 감독 마이클 두독 드 비트(Michael Dudok de Wit)의 대표작이다. 단 8분여라는 짧은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나에게 진하고 깊은 여운과 감동을 선사했던 독립 애니메이션의 수작으로 기억된다.

드넓은 하늘과 포플러 나무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어느 시골 마을,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린 딸을 남겨두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는 상황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두 부녀가 독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달릴 때, 아버지 자전거의 큰 바퀴와 딸이 탄 자전거의 작은 바퀴가 나란히 대칭을 이루며 나아가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목적지에 도착한 부녀는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아버지는 조각배를 타기 위해 독 아래 호숫가로 내려간다. 내려가던 아버지는 딸이 눈에 밝히는 듯 잠시 멈춰서더니, 다시 돌아와 딸을 한 번 더 힘차게 포옹한 후, 이내 호수 건너편을 향해 노를 저어 떠난다. 아버지를 보낸 어린 딸은 저녁 해가 질 때까지 오래도록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다, 다시금 자전거에 올라타 아버지와 함께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

이후, 소녀가 된 딸은 아버지가 배를 타고 떠난 호숫가 독길을 매일같이 찾아와 정처 없이 수평선을 바라보다 돌아가기를 반복한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며 여러 차례 계절이 바뀌고, 소녀는 어느새 숙녀가 된다. 하지만 딸은 아버지가 떠난 자리를 찾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점점 나이가 들어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된 딸은 가족과 함께 그곳을 찾아오기도 하고, 결국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되어서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품은 채 지팡이를 짚고 호숫가 독길을 찾는 것을 계속한다. 더 세월이 지나 호수의 물이 모두 말라 수풀로 변해버린

후, 이제 노파가 된 딸은 그 수풀 속에서 오래 전 아버지가 타고 떠났던 작은 배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와 재회한다. 작품 속에서는 아버지의 행방이나 두 부녀의 상황에 대한 그 어떤 설명도 없으며 마치 그들이 결국 재회할 수 없는 운명인 듯 보이지만, 딸은 언젠가 아버지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지닌 채 한평생을 살아온 것으로 묘사된다.

단편 애니메이션 <아버지와 딸>은 인간의 보편적 감정인 사랑과 그리움을 표현한 한 편의 영상 시(詩)라 할 수 있다.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배경, 그리고 슬라브 왈츠풍의 구슬픈 아코디언 선율 속에서 멀리 아버지를 떠나보낸 한 소녀의 성장 과정을 담담하게 보여주며,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슬픔과 그리움을 사무치도록 강렬하게 공감하도록 이끈다. 감독은 한 인터뷰를 통해 이 작품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그리움”에 관한 이야기라고 설명한 바 있다. 논리적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핏줄과 핏줄 사이의 그리움 말이다.

<아버지와 딸>이 선사하는 감동은 서정적인 스토리뿐만 아니라 탁월한 영상 연출로 인해 더욱 깊게 다가온다. 형태의 과감한 생략과 절제된 묘사, 여백의 미를 살린 동양화풍의 배경, 화려한 색을 배제한 모노톤의 색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길게 드리워지는 사람과 사물의 그림자 표현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작품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자전거 바퀴의 상징성, 그리고 그 흔한 클로즈업 없이 거의 롱쇼트만으로 구성된 화면 연출은 단 한마디의 내레이션 없이도 관객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전달하기에 충분하다.

결혼식을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밤 기차 안에서 아빠의 다리를 베고 곤히 잠든 딸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필자는 20여 년 전 이 작품을 통해 느꼈던 묘한 감동과 가족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떠올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딸을 가진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이 작품을 꼭 한번 감상해보길 추천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신임 예술감독 홍석원

“부산을 방문했을 때마다 느낀 활기차고 역동적인 부산의 느낌이 교향악단에 고스란히 묻어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 전통을 바탕으로 어떻게 저의 개성을 더하여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치열하게 고민하여 부산시민의 자랑이 될수 있는 교향악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신임 예술감독이자 수석지휘자로 선임된 홍석원 지휘자가 9월 6일 취임기념 연주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한국 음악계를 이끌어갈 ‘젊은 명장’

홍석원 지휘자는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관현악은 물론 오페라에서 발레, 심포니, 현대음악까지 모든 영역을 다룰 수 있는 지휘자로, 언론과 음악계에서는 한국 음악계를 이끌어 나갈 ‘젊은 명장’이라고 불리고 있다. 서울대학교 작곡과 지휘 전공, 베를린 국립음대 지휘과 디플롬(Diplom) 및 최고연주자과정(Konzertexamen)을 졸업한 그는 카라얀 탄생 100주년 기념 지휘콩쿠르에서 3위 입상했으며, 한국인 최초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 오스트리아에서 티롤 주립 오페라극장 수석 카펠마이스터를 역임했다. 홍석원 지휘자는 오페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어 독일 라이프치히 오페레타 콩쿠르에서 청중상을 받았고, 스위스 베른 오페라극장, 독일 마인츠 국립극장 등 여러 국가에 데뷔하여 호평 받았다. 한국에서도 평창올림픽 기념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와 2020년 코로나시대 세계 최초의 전막 오페라 프로덕션으로 세계 클래식계가 주목했던 국립오페라단의 마스네 ‘마농’, 2021년 국립극장 재개관 및 8·15기념 국립오

© 배준익

페라단 ‘나부코’, 그리고 2022년 베르디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한국 초연 등 기념적인 프로젝션을 지휘하며 국내 오페라 지휘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6월까지 광주시립교향악단을 이끌었던 홍석원 지휘자는 특히 광주에 클래식 바람을 일으켜 시민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받았으며 광주시립교향악단이 한국의 대표 오케스트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홍석원 지휘자는 지난 2020년과 2023년 두 번의 부산시립교향악단 객원지휘를 통해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지휘로 높은 음악적 완성도를 보여 부산의 클래식 애호가와 관객을 매료시켰다. 이 과정에서 홍석원 지휘자는 원활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뛰어난 리더십을 보이면서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을 대상으로 한, 차기 예술감독 후보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압도적인 선호도로 1순위 추천을 받은 바 있다.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

우선 홍석원호의 출향을 알리는 취임연주회(9월 6일)의 부제는 ‘프렐류드(Prélude)’. 국내 최초 교향시 전곡을 마무리하여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시그니처 작곡가가 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 모음곡과 교향시를 창안한 리스트의 ‘전주곡 제3번’, 그리고 홍석원 지휘자가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이기도 한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제5번 ‘황제’로 관객과 만난다. 이는 전통성을 계승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대중성도 놓치지 않겠다는 홍석원 지휘자의 각오가 담겨 있다. 이 외에도 올해 탄생 200주년을 맞은 작

곡가 브루크너의 교향곡 제4번 ‘로맨틱’과 독일 낭만주의의 대표 협주곡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고국 체코만큼이나 영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제8번’과 영국의 대표 작곡가 엘가의 ‘첼로 협주곡’에 이어 올해 마지막 무대인 송년음악회에서는 말러 교향곡 제2번 ‘부활’을 만날 수 있다.

“두 번의 객원지휘를 하면서 든 생각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말러라는 작곡가와 결이 잘 맞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러의 교향곡은 그 규모나 난이도에 있어서도 워낙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겠지만 지금의 역량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에 멋진 도전이 될 것이라 봅니다.”

그 이름만으로 음악팬들을 설레게 하는 ‘말러 교향곡’ 시리즈는 올해 1월, 백승원 부지휘자가 지휘했던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에 이어 제2번 ‘부활’부터 홍석원 지휘자가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간다. 그는 작곡가 말러의 작품에 집중하면서도 더 많은 관객을 위한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정통 클래식 곡도 놓치지 않겠다고 한다.

교향악단의 존재 이유, 관객

“관객이 없으면 연주하는 의미가 없다”는 홍석원 예술감독. “관객들이 부산시립교향악단을 계속 찾을 수 있도록 관객이 만족할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하겠다”는 그는 “부산 시민의 사랑을 받는 교향악단,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선도하는 교향악단, 세계적으로 부산의 위상을 높이는 교향악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파리의 콘서트홀, 필하모니아 드 파리

Philharmonie de Paris

• 글, 사진 이상훈 아트컨서터지 대표

지난 7월 26일 프랑스 파리에선 2024 하계 올림픽이 성대하게 개막을 알렸다. 1924년 파리 올림픽 이후 정확히 100년 만이다. 특히 이번 올림픽이 이목을 끄는 건, 개막식을 주 경기장이 아닌, 파리의 주요 랜드마크를 가로지르는 센 강에서 각국의 선수단이 보트로 퍼레이드를 하는 대목이다. 이 발표가 나고, 올림픽 개막 기간 파리의 모든 호텔이동이 동이 나는 진풍경이 일어나기도 했다.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그리고 퐁피두 센터를 필두로 수십여 개의 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는 파리는 오래전부터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우뚝 서 있다. 그리고 오페라 가르니에, 오페라 바스티유를 중심으로 매일 밤 오페라와 발레가 펼쳐지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2015년 필하모니아 드 파리(Philharmonie de Paris)가 개관하기 전까지는 파리의 문화적인 위상과 다르게 제대로 역할을 하는 콘서트홀이 없었다. 파리 8구 개선문 근처에 위치한 살 플레엘(Salle Pleyel)이 파리 오케스트라(Orchestre de Paris)와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Orchestre Philharmonique de Radio France)가 상주하면서 그 역할을 하였지만, 파리라는 도시의 위상과는 사뭇 다른 시설과 규모였다.

설립

파리의 콘서트홀 건립 프로젝트는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 대통령의 공약 프로그램에 처음 등장한다. 그리고 2005년 가을 도미니크 드 빌





필하모니아드 파리

팽 총리가 지역 사회에 콘서트홀 건립을 위해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 후, 파리 외곽인 18구 라빌레트 부지에 짓기로 공식 발표되었다. 이를 위한 국제 설계경기는 이듬해인 2006년 11월 시작되었다. 신청서를 제출한 98개 팀 중 6개 팀인 영국의 자하 하디드(Zaha Hadid), 오스트리아의 쿵 힌멜블라우(Coop Himmelblau), 네덜란드의 MVRDV, 프랑스의 크리스티안 드 포잠파르크, 장 누벨 아틀리에(Ateliers Jean Nouvel) 그리고 프란시스 솔레르가 우선 선정되었고, 2007년 4월 두 번째 단계와 모델 발표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장 누벨 아틀리에가 프로젝트 수행자로 선정되었다. 건설은 2009년 4월 토목 공사부터 시작되었고, 건물 작업은 2009년 9월에 시작되었다. 역시 진행과정 속에 초과되는 비용 문제로 2012년 당시 문화부 장관인 Aurélie Filippetti에 의해 프로젝트 중단이 고려되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3년 뒤인 2015년 1월 14일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필하모니아 드 파리에선 피에르 불레즈(Pierre Boulez)라고 불리는 2,400석 규모의 콘서트홀과 전시 공간, 교육 워크숍, 리허설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 산업 및 상업 기관인 시테 델라 뮤직(Cité de la musique)의 일부이며 문화부의 감독 하에 주로 교향곡 음악에 집중하고 있지만, 때로는 재즈나 월드뮤직이 프로그램에 들어가기도 한다. 상주단체로는 파리 오케스트라(Orchester de Paris)와 파리 챔버 오케스트라(Paris Chamber Orchestra)가 활동하고 있다.

위치

파리 외곽인 18구 라빌레트 지구의 그랜드 홀(Grande Halle de la Villette) 맞은편이자 시테 델라 뮤직 옆에 있는 라빌레트 공원(Parc de la Villette)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기존에 역사로 쓰였던 건물은 1977년에 폐쇄되었고, 프랑스 철도국(SNCF) 소유의 2만 제곱미터의 부지는 1981년 파리 시로 반환되었다. 다만 위치적으로 파리 중심부에서 다소 떨어진 외곽에 있어서, 파리 시민들이 일상에 이용하는 점은 어려움이 있어 보였으나, 건물 지하에 위치한 충분히 넓은 주차장과 평일 연주시작 시간을 저녁 8시로 정하면서, 그 우려는 한번에 불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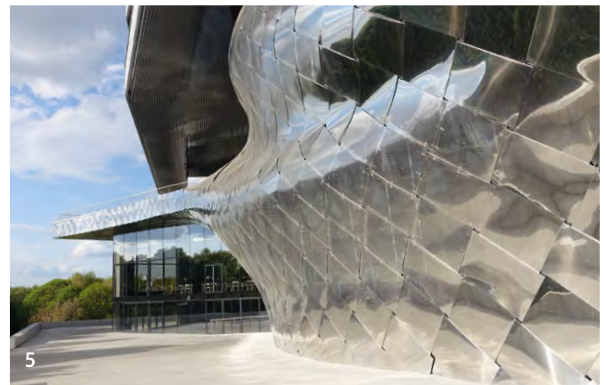
1 필하모니아 드 파리 내부의 파이프로르간 2, 3 필하모니아 드 파리 객석



건축

필하모니 드 파리의 외관만 놓고 보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물인지 짐작하기 어려울만큼 파격적이다. 마치 은색으로 반짝이는 대형 우주선과 같은 외형은 프리츠커 수상자이기도 한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에 의해서 태어났다. 파리 외곽 순환도로에서 처음 이 건물을 마주할 때는 공연장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라빌레트 지구를 관통해서 진입할 경우 역시 경사면으로 된 진입로 위에서 만나는 알루미늄 재질의 금속 매스는 인상적이다. 내부에 진입하면 직선으로 된 모서리 하나 없는 비대칭형의 객석 구조와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음향은 나가타 음향의 야스히사 토요타(Yasuhisa Toyota)가 자문하였으며, 교향곡 연주에 최적화된 잔향으로 설계되었다. 기존의 슈박스 형태의 평면구조가 아니라 베를린 필하모니와 같은 와인야드 형태의 객석 구조로 무대와 청중 사이의 거리가 객석 규모에 비해 가깝다. 따라서 지휘자와 가장 멀리 있는 청중 사이 거리는 최대 32미터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우수한 음향 성능을 위해 공연장 체적의 부피는 3만 세제곱 미터를 초과하지 않게 디자인 되었는데, 이는 콘서트홀 내부의 흡음재 면적과 함께 적합한 잔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오르간 제작업체인 리거 오르겔bau(Rieger Orgelbau)가



4,5 필하모니아 드 파리 외관

제작한 파이프 오르간은 콘서트홀 개관보다 1년 늦게 만들어졌는데 전체 6,055개의 파이프로 구성되었다. 마치 외부에서 보면 세련된 현대 조형물같이 콘서트홀의 파격적인 디자인과 어울린다.

어느덧 개관 10주년을 앞두고 있는 필하모니아 드 파리는 오페라 바스티유, 가르니에와 함께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했다. 9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6월까지 이어지는 시즌 중에는 거의 매일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정상급 솔리스트들의 리사이틀, 그리고 상주하고 있는 파리 오케스트라의 정기 공연을 만날 수 있으며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공연장은 파리 시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뮤지컬 본고장’ 미국·영국 공략 나선 K뮤지컬

• 장지영 국민일보 선임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올 상반기 뮤지컬계 최고의 빅뉴스를 꼽으라면 한국 제작사 오디컴퍼니의 신춘수 대표가 리드 프로듀서로 나선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의 뉴욕 브로드웨이 공연 소식이다. <위대한 개츠비>는 지난해 10월 뉴저지주 페이퍼밀

플레이하우스(1,200석)에서 3주간의 트라이아웃(시범공연)을 거친 뒤 올해 브로드웨이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브로드웨이 씨어터’(1,700석)에서 3월 29일 프리뷰를 시작해 4월 25일 공식 개막했다.

신춘수 대표는 국내에서 라이선스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맨오브라만차> <드라큘라> 등을 히트시키며 공연 시장을 확대한 주역이지만 ‘돈키호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뮤지컬의 본고장’ 브로드웨이 진출에 워낙 저돌적으로 나섰다가 실패한 탓이다. 하지만 그가 공동 리드 프로듀서로 나섰던 작품들 가운데 2009년 <드림걸즈>는 미국 국내 투어를 했지만 브로드웨이에 입성하지 못했고, 2014년 <할러 이프 야 히어 미(Holler If Ya Hear Me-내 목소리가 들리면 소리쳐)>와 2015년 <닥터 지바고>는 브로드웨이에서 한 달 여 만에 조기 종연했다.

앞선 세 작품과 달리 이번 <위대한 개츠비>는 순항 중이다. 사전제작비(본공연 개막 전 투입된 제작비)가 2,500만 달

리(약 346억 원)에 달하는 이 작품은 브로드웨이 예매 사이트에서 5~10위 사이를 오가며 주당 100만 달러(약 13억 7,000만 원) 이상 매출액을 내는 ‘원 밀리언 클럽’에 입성했다. 500석 이상 상업극장 41개가 포함된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지속하는 기준이 바로 주당 매출액 100만 달러 유지다. 배우 개런티 등 1주일 운영비가 약 90만 달러가 투입되기 때문이다. <위대한 개츠비>는 일단 11월까지 예정했던 티켓 오픈을 내년 봄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장기공연의 첫 관문을 넘었다. 내년 하반기 한국에서 공연이 예정된 가운데 영국 웨스트엔드 공연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브로드웨이에서 프로듀서를 빼고 창작진이 모두 미국인인 <위대한 개츠비>를 K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신춘수 대표는 “한국인이 프로덕션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을 때 K뮤지컬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본다. 제작방식이 다양해지고 협업이 많은 요즘 제작진의 구성원이 모두 한국인일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K뮤지컬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게 맞다고 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K뮤지컬의 정의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얼마 전 미국 공연계 최고 권위의 토니상 시상식에서 <위대한 개츠비>가 의상상을 받자 국내 언론은 K뮤지컬의 수상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런가 하면 국내 뮤지컬계에서 ‘일휴’ 콤비로 불리는 박천휴 작가와 윌 애런슨 작곡가의 <어쩌면 해피엔딩>의 미국

버전도 브로드웨이의 ‘벨라스코 씨어터’(1000석)에서 오는 9월 프리뷰를 거쳐 10월 본공연이 개막 예정이다. 2014년 우란문화재단 기획으로 개발된 <어쩌면 해피엔딩>은 2015년 우란문화재단 낭독 공연과 트리아아웃 공연을 거쳐 2016년 말 서울에서 초연이 이뤄졌다.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제 2회 한국뮤지컬어워즈 6관왕을 차지했으며, 올해 6월부터 다섯 번째 시즌이 진행되고 있다.

월휴 콤피는 <어쩌면 해피엔딩> 대본을 쓸 때부터 한국어 버전과 영어 버전을 동시에 작업했다. 영어 버전은 2016년 뉴욕에서 열린 관계자 대상 낭독 공연에서 프로듀서 제프리 리처드의 관심을 끌었다. 리처드는 브로드웨이에서 토니상을 8회나 받은 거물이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지난 2020년 애틀랜타에서 트리아아웃 직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뤄졌다가 올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다만 한국 버전이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 외에 멀티롤(Multi role,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배역)을 소화

하는 배우까지 3인극이지만 브로드웨이 버전은 멀티롤을 분리한 것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극장에서 시작된 작품이 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른다는 점에서 한국 뮤지컬사를 새로 쓰게 됐다.

또 영국 런던에서는 창작 뮤지컬 <마리 퀴리>의 영어 버전이 6월 1일 개막했다. 한국 제작사 (주)라이브의 강병원 대표가 현지 프로덕션의 리드 프로듀서로 참여해 영국 제작진과 배우들로 선보였다. 강 대표는 천세은 작가와 최종윤 작곡가가 작업한 한국어 공연의 대본과 음악을 바탕으로 영국 연출가 사라 메도우스와 현지화 과정을 가졌다. 런던의 오프-웨스트엔드에 속하는 채링 크로스 시어터(265석)에 올라간 <마리 퀴리>는 7월 28일까지 공연된다. 한국 뮤지컬계에서 서양 위인 소재의 작품이 많지만, 이 작품은 주연 캐릭터의 고향인 유럽에 역수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뮤지컬의 해외 진출은 2000년대 이후 한국 뮤지컬 시장의 성장과 함께 등장했다.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권에서 K뮤지컬이 잇따라 공연된 것이다. 처음에는 K팝 스타의 출연에 따른 것이었지만 2010년대 이후 작품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면서 점차 라이선스 판매를 거쳐 현지화가 이뤄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K뮤지컬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2016~2019년 중국에서 쇼케이스 등을 선보이는 ‘K뮤지컬 로드쇼’를 개최했다. 이어 2021년부터 K뮤지컬 로드쇼를 포함한 ‘K뮤지컬 국제마켓’을 통해 우수 레퍼토리들을 단계별 전략에 따라 해외에 진출하도록 돕고 있다. 특히 K-뮤지컬 진출 시장을 아시아권에서 영미권으로 확장하기 위해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내 제작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제작사들은 해외 제작사와 함께 현지화 기반 낭독 공연과 트리아아웃을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한 달간 공연하는 (주)EG뮤지컬컴퍼니의 <유앤잇(YOU & IT)>은 지난해부터 2년에 걸쳐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쇼케이스와 워크숍을 통해 현지화 과정을 가졌다. 그런가하면 런던과 뉴욕에서 기획 단계부터 현지 창작진과 함께 작품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 제작사도 있다.

해외 진출을 통해 한정된 내수시장을 극복하려는 한국 프로듀서들의 의지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K뮤지컬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 뮤지컬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그동안 국내 시장의 확대를 이끌었던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인 해외 진출에 나선 것이 가시화된 결과다. K뮤지컬의 세계화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



- 1 브로드웨이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 ©Matthew Murphy and Evan Zimmerman
- 2 신춘수 오디컴퍼니 대표 ©오디컴퍼니
- 2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후 작가&월 애런슨 작곡가 ©CJENM
- 3 런던에서 막을 올린 뮤지컬 <마리 퀴리> ©Pamela Raith

| SUN | MON | TUE | WED |
|--|--|---|--|
| <p>더지</p> <p>부산문화회관 부설주차장 일시 폐쇄 안내 부산문화회관 부설주차장 확장공사를 위해 출입을 전면 금지하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폐쇄기간: 2024. 7월~8월(기간변동 가능)</p> <p>부산문화회관이 보다 더 나은 시설로 관객과 만나기 위해 무대/시설 점검 및 개선 공사로 공연장별 휴관에 들어갑니다.</p> <p><u>하반기 점검 기간(7월 29일~8월 12일)</u></p> | <p>전시실</p> <p>서양미술 400년, 명화로 읽다: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7월 2일(화)-10월 27일(일) ·관람시간: 오전 10:00~오후 7:00 (오후 6:00 입장 마감, 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료: 성인(20세 이상) 2만원, 청소년(14~19세) 1만6천원, 어린이(3~13세) 1만2천원 ·문 의: 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 1661-1079</p>  | | |
| 4 | 5 | 6 | 7 |
| 11 | 12 | 13 | 14 |
| | | <p>J Choir 제2회 정기연주회 '안톤 부르크너 탄생 200주년 기념 음악회' 19:30 [중] 전석 2만원/아트락(010-5468-4658)</p> | <p>UKRAINE 레전드 뮤지션 그리고 평화 기원 콘서트 Concert' 19:00 [중] 5만원-3만원-2만원-15</p> |
| 18 | 19 | 20 | 21 |
|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달 샤페트' 11:00, 14:00, 16:00 [중] 6만원-4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 | <p>부산대학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제19회 정기연주회 19:00 [중] 부산대학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010-9016-8483)</p> |
| 25 | 26 | 27 | 28 |
| <p>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제27회 정기연주회 '현악합주로 찾는 19세기와 20세기 로맨틱' 17:00 [중] 무료/예술기획(010-4909-7444)</p> | | <p>센토첸버소사이어티 제13회 정기연주회 'Dvořák!' 19:30 [중]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 <p>[재]부산문화회관 월드뮤직 '김유빈 플루트 리사이틀' [중] 5만원-3만원/(재)부산문화회관</p> |

| ED | THU | FRI | SAT |
|--|--|---|--|
| | 1 | 2 | 3 |
| 7 | 8 | 9 | 10 |
| 4 | 15 | 16 | 17 |
| <p>선과 함께하는 전쟁, 사랑, '2024 Friendship</p> <p>만원/쥬다소니(328-9998)</p> | <p>제40회 KBS부산 무용콩쿠르 본선 09:00 대 KBS부산방송총국(620-7327) 제1245회 MBC 목요일음악회 'HOT SUMMER 퓨전국악콘서트' 19:30 중 1만원5천원/(사)문화도시부산네트웍(760-1494)</p> | <p>16</p> | <p>17</p> <p>썸머 무비 콘서트 16:00 대 11만원·9만원·6만원·4만원/(사)밀레니엄심포니 오케스트라(02-6292-9368, 937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달 샤페트' 11:00, 14:00, 16:00 중 6만원·4만원/(주)썸크브릿지(1533-7857)</p> |
| 1 | 22 | 23 | 24 |
| <p>에스트라 Con brio</p> <p>0 오케스트라 Con brio</p> | <p>22</p> <p>작곡동인 SEUM 제13회 정기연주회_음악극 이상의 이상한 이야기 '활소와 도깨비' 19:30 중 전석 1만원/W엔터테인먼트(010-7600-4514)</p> | <p>23</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 19:30 대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심야음악회' 21:00 중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p>24</p> |
| 8 | 29 | 30 | 31 |
| <p>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1들' 19:30</p> <p>산문화회관(607-6000)</p> | <p>29</p> | <p>30</p> <p>2024 창작연희 The늘 영남의판 '치고 받고' 19:30 중 초대/창작연희The늘(010-7153-5501)</p> | <p>31</p> <p>(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p> <p>(재)부산문화회관 시즌 개막작 '나비부인' 17:00 대 10만원·8만원·6만원·4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2024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 IV '뇌과학자 정재승' 15:00 중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 SUN | MON | TUE | WE |
|--|---|---|------------------------------------|
| <p>공지</p> <p>부산시민회관이 보다 더 나은 시설로 관객과 만나기 위해 무대/시설 점검 및 개선 공사로 공연장별 휴관에 들어갑니다.</p> <p>하반기 점검 기간(7월 29일~8월 12일)</p> | <p>전시실</p> <p>구스타프 클림트 레플리카 7월 5일(금)-8월 11일(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시간: 오전 10:00~오후 6:00(매주 월-화요일 휴관) · 관람료: 균일 8천원(13세 미만 어린이 3천원 할인) ·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 |
| 4 | 5 | 6 | 7 |
| 11 | 12 | 13 | 14 |
| |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 소 부산광역시(888-153) |
| <p>18</p> <p>디즈니&픽사 OST 콘서트 16:00 대 11만원·9만원·6만원·4만원 (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02-6292-9368, 9370)</p> <p>매직드로잉 가족극 '두들팝' 11:00, 14:00 소 전석 5만원/브러쉬씨어터(1600-8534)</p> | <p>19</p> | <p>20</p> <p>제15회 (주)사랑모아금융서비스 부모님초청 孝행사 14:00 대 (주)사랑모아금융서비스(714-4606)</p> | 21 |
| <p>25</p> <p>지브리&디즈니 OST FESTA 17:00 대 9만원·7만원·5만원/아트인뮤직(02-525-4420)</p> <p>제12회 GYMA 국제아티스트 음악콩쿠르 09:30 소 글로벌영재음악교육원(010-6614-6424)</p> | <p>26</p> | <p>27</p> | 28 |

| ED | THU | FRI | SAT |
|----|---|---|---|
| | 1 | 2 | 3 |
| | 8 | 9 | 10 |
| 4 | 15 제79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 10:00 대 부산광역시(888-1854) 의 날 기념행사 14:00 (2) | 16 | 17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유럽의 대표 재즈현악5중주 '볼로시' 내한공연 17:00 대 6만원-4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매직드로잉 가족극 '두들팝' 11:00, 14:00, 16:00 소 전석 5만원/브러쉬씨어터(1600-8534) |
| 1 | 22 | 23 연극 '필로우맨' 19:30 소 전석 2만5천원/극단 피크닉(010-6607-3313) | 24 김경호 데뷔 30주년 전국투어 콘서트:THE ROCKER 16:00, 19:30 대 쉼티나엔터테인먼트(010-2726-6659) 연극 '필로우맨' 19:30 소 전석 2만5천원/극단 피크닉(010-6607-3313) |
| 8 | 29 | 30 연극 '축하케이크' 20:00 소 전석 3만원/잠방(070-8019-1519) | 31 뮤지컬 시크릿췌췌 별의 보석 '소원을 말해봐!' 11:00, 14:00, 16:30 대 전석 6만원/우리두리(1577-4868) 연극 '축하케이크' 15:00 소 전석 3만원/잠방(070-8019-1519) |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612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제12대 홍석원 예술감독 취임 기념
2024 제15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IV

Prélude

지휘 / 홍석원
피아노 / 알렉산더 코르산티아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
슈트라우스 / “장미의 기사” 모음곡
리스트 / 교향시 제3번 “전주곡”

2024년 9월 6일 금요일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공동주관 부산시립교향악단
티켓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문의 051-607-6000(ARS 1번)

www.bscc.or.kr

INVITATION TO THE ARTS

G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C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M 무지크바움 070-7692-0747

B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H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시네바움 010-2774-345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음 557-3369

O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포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E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E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 KBS부산홀 620-7181

S SM아트홀 1600-1602



2024 부산오페라시즌 개막작
푸치니 서거 100주년 기념

오페라 나비부인



일시 8월 31일-9월 1일 토-일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좌석 VIP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푸치니 서거 100주년을 맞아 푸치니가 가장 사랑한 오페라 ‘나비부인’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오페라 ‘나비부인’은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고 지역 오페라 육성과 오페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오페라 축제 ‘2024 부산오페라시즌’ 개막작으로, 8월 31일과 9월 1일 두차례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관객과 즐기는 오페라 축제의 장

2024 부산오페라시즌

‘부산오페라시즌’은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온 ‘부산오페라 WEEK’의 새로운 명칭으로, 2021년부터 지역 공공극장과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공공성과 작품성, 예술성을 높이는 한편,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지고 있다. 특히 지역의 공공극장이 직접 공연을 기획, 제작하면서 오페라 육성의 기반이 되는 전문인력 양성 및 제작극장 조성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 ‘2024 부산오페라시즌’에서는 (재)부산문화회관과 더불어



어 금정문화회관이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으로 함께 참여한다. 19세기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를 이끈 대표적인 작곡가인 도니체티의 '사랑의 묘약'은 두 남녀의 순수한 사랑을 도니체티만의 유쾌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그려낸 로맨틱 코미디극으로, 9월 11일과 12일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에서 무대장치나 의상 없이 진행되는 콘서트 오페라로 펼쳐진다.

푸치니가 가장 사랑한 오페라

오페라 '푸치니'는 (재)부산문화회관이 2019년 베르디 '리콜레토'를 시작으로 다섯 번째로 선보이는 제작오페라로, 특히 2022년과 2023년 오페라 '라보엠', '토스카'에 이어 올해 '나비부인'까지 푸치니 3대 오페라 모두를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존 루터 룡의 동명의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오페라 '나비부인'은 그가 '미미, 무제타, 마농, 토스카에 대한 애정과 나비부인에 대한 애정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할 만큼 가장 푸치니가 가장 사랑했던 오페라다. 일본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돌아오지 않을 남편을 홀로 기다리다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는 초초상의 이야기를 푸치니 특유의 서정적이고 극적인 선율로 그려낸 작품으로,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모태가 되기도 했다. 특히 '나비부인'은 스토리 자체와 관련된 극적인 무대연출과 당시 서구에서 상당히 이국적이고도 흥미롭다고 느꼈을 동양적 5음 음계, 그리고 푸치니가 수집한 일본의 속요와 이탈리아 오페라 전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선율로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푸치니의 오페라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무대에 오르고 있다.

- 지휘/ 이병욱
- 연출/ 김숙영
- 합창지휘/ 김강규
- 음악코치/ 김보미
- 연주/ 2024 시즌 부산오페라하우스 합창단 · 오케스트라



지휘 이병욱



연출 김숙영



초초상

소프라노 조선형



소프라노 임경아



핑크톤

테너 박지민



테너 양승엽



샤플레스

바리톤 정승기



바리톤 나현규



스즈키

메조소프라노 신성희



메조소프라노 김세린

| 일시 | 초초상 | 핑크톤 | 샤플레스 | 스즈키 | 고로 | 본조 | 케이트 | 신관 /야마도리 |
|--------|-------------|-----------|------------|---------------|-----------|------------|---------------|------------|
| 8월 31일 | 소프라노 조선형 | 테너 박지민 | 바리톤 정승기 | 메조소프라노 신성희 | 테너 원유대 | 베이스 김정대 |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 바리톤 오바울 |
| 9월 1일 | 소프라노 임경아 | 테너 양승엽 | 바리톤 나현규 | 메조소프라노 김세린 | 테너 원유대 | 베이스 박순기 |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 바리톤 오바울 |

최고 실력자들이 선사하는 완성도 높은 무대

이번 오페라 ‘나비부인’을 위해 각 분야 최고의 실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휘는 인천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있는 이병욱이, 연출은 2019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을 수상한 연출가 김숙영이 맡아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오페라를 이끌어갈 주인공 역으로 초초상 역에는 소프라노 조선형과 임경아, 핑커톤 역에는 테너 박지민과 양승엽이 더블 캐스팅됐다. 특히 소프라노 임경아와 테너 양승엽은 (재)부산문화회관이 지난 4월 진행한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지역의 실력있는 성악가로, 이밖에 바리톤 나현규(샤플레스), 메조소프라노 신성희(스즈키), 김세린(스즈키), 테너 원유대(고로)가 오디션을 거쳐 이번 무대에서 관객과 만난다. 이번 무대의 연주와 합창 역시 2024 시즌 부산오페라하우스 합창단·오케스트라(음악감독 김봉미, 합창감독 김강규)가 맡아 풍성한 무대를 선보인다. 시즌 부산오페라하우스 합창단·오케스트라는 지난 2022년부터 부산시에서 선발, 육성하는 오페라 전문인력으로, 공개 오디션을 거쳐 선출된 지역 예술인들이 시즌 단원으로 작품에 참여하면서 오페라 육성의 기반이 되는 전문인력 양성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음악적 소통에 탁월한 지휘자 이병욱은 교향곡 지휘는 물론 ‘살로메’, ‘카르멘’, ‘라 트라비아타’, ‘마술피리’ 등 대한민국 대표 오페라 작품은 물론 한국 초연작인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어린왕자’, 국립발레단의 ‘스파르타쿠스’, ‘해적’, ‘돈키호테’, ‘호두까기 인형’ 등 다양한 장르의 제작공연에 지휘자이자 음악감독으로 참여하며 음악가들이 신뢰하는 음악감독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출가 김숙영은 그동안 국립오페라단 ‘라보엠’, ‘사랑의 묘약’,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리콜레토’, ‘자명고’, ‘로베르토 데브뢰’, ‘토스카’, 서울 오페라 페스티벌



‘마술피리’, ‘카르멘’, ‘세빌리아의 이발사’, 대구오페라하우스 ‘나비부인’, ‘허왕후’ 등 다수 오페라를 비롯하여 뮤지컬, 음악극 등 다양한 작품을 연출했으며, 2019년에는 오페라 ‘나비부인’으로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초초상 역의 소프라노 조선형은 이탈리아 쿠네오 국제콩쿠르 1위, 라스페치아 국제콩쿠르 2위, 로마 국제콩쿠르 2위, 부드리오 국제콩쿠르 1위 및 관중상, 특별상, 보게라 국제콩쿠르 2위 및 관중상, 파르마 국제콩쿠르 1위, 스페인 빌바오 국제콩쿠르 1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오페라하우스에서 데뷔한 후, 유럽을 중심으로 오페라 주역 및 솔리스트로 폭넓은 행보를 펼치고 있다. 소프라노 임경아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국제음악콩쿠르 ‘Marcello Giordani’ 3등, 제15회 베르가모 국제콩쿠르 ‘Giovanni Battista Rubini’ 2등, 제23회 오르비에토 국제콩쿠르 ‘Spazio Musica’ 1등, 제1회 이탈리아 소렌토 국제콩쿠르 1등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2019년에는 ‘나비부인’ 초초상역으로 스페린, 프랑스 투어공연을 가진 바 있다.

핑커톤 역의 테너 박지민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벨베테레 콩쿠르 ‘빈 국립 오페라 극장 특별상’, 남미 최고의 콩쿠르 Bidu Sayao 1위, 프랑스 국제 아트송 콩쿠르 1위 및 관객상, 이태리 비요티, 툴루즈 국제 성악콩쿠르, 에스토니아 Klaudia Taev 성악콩쿠르 1위 등 유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2010년 런던 코벤트가든 무대에서 오페라 ‘라보엠’ 로돌포 역으로 유럽 데뷔한 후 세계 유수의 극장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 중이다. 테너 양승엽은 국제

콩쿠르 U. GIORDANO, Citta di Angro, M. Batistini, Citta di Nettuno에서 입상했으며, 오페라 주역 외에도 2002 한일 월드컵 기념 이태리 국회 초청 음악회, 이태리 Lazio주 순회 공연, rietti teatro 초청공연, 중국 상하이 한·중 교류음악회,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원 콘서트 등 솔리스트로 국내외 다수 무대에 서왔다.

이밖에 독일 아우스부르크 국립극장 전속 주역가수를 시작으로 독일 칼스루에 극장 전속 주역가수 등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오페라가수로 활동하다 2022년 귀국,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은 물론 성악가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리톤 정승기(샤플레스), Ferruccio Tagliavini 국제콩쿠르 1위, Piero Cappuccilli 국제콩쿠르 1위, Deiva Marina 국제콩쿠르 1위 등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고 2012년 이탈리아 Orvieto Mancinelli 극장에서 데뷔한 후 유럽과 한국에서 주역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바리톤 나현규(샤플레스), 레오폴도 무노네 국제콩쿠르 1위, 파우스토 리치 국제콩쿠르 2위, 마리오 란차 국제콩쿠르 3위 등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고 현재 국립오페라단 솔리스트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메조소프라노 신성희(스즈키), 아이젠베르크-프리트 협주곡 콩쿠르 1위, 프리미어 오페라 국제성악콩쿠르 특별상, 유니버설 음악콩쿠르 2위 등 다수 콩쿠르 입상하고 2017 이탈리아 트렌티노 뮤직 페스티벌에서 데뷔 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현재 국립오페라단 솔리스트로 있는 메조소프라노 김세린(스즈키), 이탈리아 마리오텔모나코 시립극장, 페라라 시립극장, 리카르도잔도나이 시립극장, 렌나노 시립극장 등에서 오페라 주·조역으로 활동해 온 테너 원유대(고로) 등이 출연,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

9월 11일(수)-12일(목)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금정문화회관 519-5661~4



2024 부산오페라시즌의 또다른 작품인

'사랑의 묘약'은 오늘날에도 세계 각국에

서 자주 상연되는 도니체티의 오페라이다. 도니체티는 이 작품을 단 6주 만에 완성했다고 하는데, 1832년 밀라노에서의 성공적인 초연 후 계속적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으면서 1838년부터 1848년 사이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이 연주된 작품으로 기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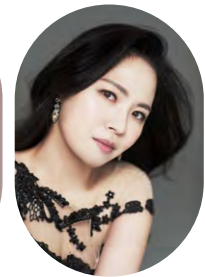
이번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원주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지휘자 김광현이 지휘하고 국내 유수의 단체와 함께 다수 오페라를 연출한 엄숙정의 연출로 무대에 오른다. 출연진으로 '아디나' 역에는 소프라노 홍혜란과 박하나, '네모리노' 역에 테너 최원휘와 도영기, '벨코레' 역에 바리톤 이동환과 김종표, '돌카마라' 역에 베이스 김대영, '잔네타' 역에 소프라노 곽유정이 캐스팅됐다. 특히 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홍혜란, 테너 최원휘 부부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감상할 수 있다.



지휘자 김광현



아디나 소프라노 홍혜란(11일)



소프라노 박하나(12일)



연출 엄숙정



네모리노 테너 최원휘(11일)



테너 도영기(12일)

불행한 사랑에 박제되는 초초상의 불운한 운명

• 유윤종 동아일보 음악전문 기자

네 번째 오페라 ‘라보엠(1896)’과 다섯 번째 ‘토스카(1900)’로 세계 정상의 흥행 작곡가가 된 푸치니는 1900년 ‘토스카’ 영국 공연을 보기 위해 런던에 갔다가 미국 작가 벨라스코의 연극 ‘마다마 버터플라이’를 관람했다. 내용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는 단박에 이 극에 매료됐다. 연극은 존 루터 룡이라는 소설가의 단편에서 줄거리를 가져온 것이었다.

푸치니를 특히 매료시킨 것은 새벽 장면이었다. 어스름한 새벽에 물새 사냥을 즐겼던 그는 모든 생명과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이 시간을 사랑했다. 첫 오페라인 ‘빌리’부터 그의 오페라에는 새벽 장면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탈리아 작곡가가 런던에서 본 연극에 매혹된 것은 기술의 발전 덕분이었다. 주인공인 게이샤는 남편이 항구에 들어온 것을 알고는 다다미 위에 무릎을 단정히 꿇고 앉아 기다리며 밤을 꼬박 새운다. 날이 서서히 밝아지는 효과는 새로 등장한 전기조명으로 가능해졌다. 전기 저항을 천천히 내리면 무대가 서서히 밝아지는 것이다. 기존의 가스등 조명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푸치니는 이런 인공적인 전환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라보엠’ ‘토스카’라는 두 공전의 히트작을 함께 탄생시킨 두 대본작가 자코사와 일리카가 이번에도 함께 했다. 푸치니는 악보와 레코드를 통해 입수한 일본 음계의 특징과 감성을 악보에 녹여 넣었고 화음을 겹겹이, 때로 4도씩 쌓아 올려서 등실 뜨는 듯한 느낌을 내는 드뷔시의 화성을 도입했다. 어떤 작곡가의 개성이든 자기 식으로 소화해서 내놓는 것은 밀라노 음악원 재학시절부터 인정받은 푸치니의 강점이었다.

초연은 1904년 2월 17일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으로 잡혔다. 결과는 누구도 예상 못한 것이었다. 공연은 야유로 덮여버렸고 날이 밝는 장면에서 새소리를 모방한 휘슬이 울리자 청중들은 멍멍, 음머 소리를 냈다. 주연 여가수는 마침내 오케스트라 반주부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되자 울음을 터뜨렸다.

왜 이런 소란이 일어났을까? 분명한 것은 이 날 ‘나비부인’ 초연이 밀라노의 오페라 팬들에게는, 유별난 의미에서, 오래 기대되어온 이벤트였다는 것이다. 자존심 강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밀라노 오페라 팬들이 “이 잘 나가는 작곡가에게 이번에는 한번 모욕을 줘보자”는데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했을 수 있다. 전말은 베일에 싸여 있다. 푸치니는 개작에 들어갔다. 통으로 한 장면을 이루었던 2막을 둘로 나누었다. 테너 비중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돌아온 남자주인공 핑커튼이 후회하는 아리아 ‘안녕 꽃피는 집이여’를 새로 넣었다. 모습을 새롭게 한 ‘나비부인’은 5월





24일 브레시아에서 처음 공연되어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듬해 10월 톨리오 세라핀 지휘로 소란이 일었던 밀라노에 돌아와 다시 한 번 대성공했다. 그림자는 걷혔다. 나비부인은 푸치니의 세 번째 세계적 ‘블록버스터’가 되었다.

소란으로 끝난 초연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이 작품에 따라다니는 가장 큰 비판의 하나는 전작들, 특히 ‘라보엠’의 구조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첫 오페라부터 ‘나비부인’까지 푸치니의 오페라는 단 하나 ‘토스카’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공식을 따랐다. 첫 막에서는 두 연인의 만남과 사랑이 펼쳐진다. 중간에는 긴 이별이 있다. 마지막 막에서는 두 사람이(대개 첫 막과 같은 장소에서) 재회한다. 그러나 첫 막과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여주인공은 남주인공의 무능이나 무책임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이고 결국은 목숨을 잃으면서 막이 내린다.

그러나 ‘나비부인’에는 전작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 ‘나비부인’에서 첫 막과 마지막 막을 연결하는 음악적 재료들은 선율에서 짧고 불분명한 동기들로 해체된다. 많은 경우 관객들은 이 재료 또는 동기들을 명백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극장을 나서게 된다.

대표적으로 나비부인의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동기가 있다. 1막에서 핑커튼과 결혼하게 된 초초상은 친구들과 함께 언덕을 걸어 결혼식이 열리는 집으로 다가온다. 초초상과 친구들은 ‘넓은 하늘, 넓은 바다(Quanto cielo, Quanto mar)’라는 탐미적인 노래를 부른다. A플랫장조의

음계상 ‘도-시-솔-라’로 이어지는 동기다. 이후 이 음형 또는 동기는 계속 조를 바꾸지만 ‘도-시-솔-라’의 음계 구조는 변함없이 이어진다. 1막 끝 부분 사랑의 2중창 ‘고요한 밤, 평화로운 밤’에서도 이 네 음 동기는 계속해서 강조된다.

막이 바뀌어 이 오페라의 대표 장면인 아리아 ‘어떤 개인 날’에서도 이 동기는 이어진다. ‘어떤 개인 날, 우리는 보게 될 거야’라는 첫 가사는 G플랫장조에서 음계상 ‘도-라-도-라-시-솔라’로 흐른다. 1막에 나오는 희망의 동기 ‘도-시-솔라’를 변형한 것이다. 이어 집에 돌아온 핑커튼은 자신의 무책임을 후회하는 노래 ‘안녕, 꽃피는 집이여’를 부른다. 이 노래의 첫 부분 ‘Addio, fiorito asil’은 음계상 ‘솔-도-레-시-솔-라’다. 역시 같은 동기의 변형이다.

한편으로 이 오페라에는 상반된 동기가 있다. ‘저주의 동기’라고 부를 수 있는 동기다. 1막 결혼식 장면에서 초초상의 삼촌인 승려 본조가 나타나 어깃장을 놓고, 밤이 되어 신부는 이 지긋지긋한 사건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친다. 이때 음계상 ‘솔-라-시-라-솔’이 반복되는 음형이 흐른다. 세 음이 차례로 올라갔다가 같은 음계 순으로 내려오는 산(山)과 같은 형태다.

이날 밤 초초상은 핑커튼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 나라에서는 나비를 잡아 핀으로 찢어서 잡아놓는다면서요?” 이 불행한 사랑에 박제되는 초초상의 불운한 운명을 암시한다. 이때 앞서의 음형이 다시 등장한다. 간주곡 시작 부분에도, 초초상의 마지막 아리아 ‘잘 보아 다오, 사랑하는 아이야 안녕!’에도 이 동기는 다시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상기할 일이 있다. 톨의 원작 소설 ‘마다마 버터플라이’에서 여주인공은 목숨을 끊고자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다. 벨라스코의 연극에서도 역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지만 그 결과는 뚜렷하지 않다. 푸치니의 오페라에서는? 비장하게 흐르는 최후의 관현악은 초초상이 목숨을 끊는데 실패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삭제해 버린다. 푸치니는 그의 음악으로 마침내 초초상을 ‘죽인’ 것이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

8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유네스코 선정 인류무형유산에 선정된 국립국악원의 '종묘제례악'이 부산을 찾는다.

조선 왕실이 탄생시킨 최고의 걸작

예(禮)와 악(樂)을 통치수단으로 삼았던 조선왕조 500년에서 종묘제례는 나라의 태평과 백성의 안위를 기원하던 조선 왕실의 가장 큰 행사였다. 종묘제례악은 조선 역대 왕들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서 제를 올릴 때 연주하던 음악과 춤으로, '조선 왕실이 탄생시킨 최고의 걸작'이라 불릴 만큼 매

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전통문화유산이다. 특히 종묘제례악은 세종대왕이 직접 작곡하고, 왕실 음악기관인 장악원(掌樂院)의 악공들이 연주했으며, 현재는 국립국악원이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종묘제례악은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된데 이어 2008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됐다. 특히 해외 무대에서 큰 호응을 얻어 2000년과



2007년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공연되어 주목받았으며, 2015년에는 해외공연으로는 최대 규모로 파리 국립샤이오극장의 시즌 개막작으로 전회 매진을 기록했고, 2022년엔 한·독 문화협정 체결 50주년을 기념해 독일 4개 도시(베를린·함부르크·뮌헨·뮐른) 순회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해 9월에는 동유럽 국가로 무대를 넓혀 헝가리와 폴란드에서 종묘제례악을 선보여 현지 관객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지난해 최초로 세종, 서울, 대전, 울산, 대구 등 5개 도시에 순회공연이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부산을 비롯하여 제주도, 춘천, 고양, 경주, 전주 등 7개 지역에서 관객과 만난다.

대규모 연주단이 펼치는 종묘제례악 전막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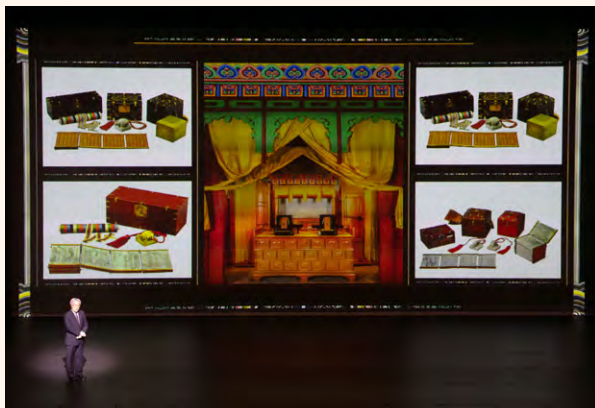
이번 무대에서는 70여 명 규모의 국립국악원 소속 정악단(예술감독 이진희)과 무용단(예술감독 김충한)이 무대에 오른다. 본래 종묘제례악은 야외 공간에서 연주하던 것이지만, 이번 연주는 실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묘제례악의 섬세한 선율과 음향을 감상하고, 일무(佾舞)라는 독특한 무용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일무는 종묘제례에서 '줄을 지어 행하는 춤'이라는 뜻으로 무용수들이 가로와 세로의 줄을 맞추어 서서 자리를 거의 이동하지 않고 춤춘다. 일무는 문무와 무무로 나뉘는데, 문무는 문덕을 찬양하고 무무는 무공을 찬양하는 춤이다. 문무와 무무는 각각 손에 드는 무구가 다르다. 문무를 출 때는 왼손에 약(籥), 오른손에 적(翟)을 들고, 무무를 출 때는 앞의 네 줄은 목검, 뒤의 네 줄은 목창



을 든다. 약은 대나무로 만든 피리이며, 적은 나무로 만든 용머리에 꿩 깃 장식을 늘어뜨린 형태를 하고 있다.

해설로 전하는 종묘제례악의 인문학적 가치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종묘제례악의 쉽고 재미있는 이해를 위해 김영운 전 국립국악원장이 직접 해설을 맡아 종묘제례악의 소중한 가치를 전한다. 종묘제례의 절차와 제례악에 쓰이는 악기와 음악, 무용의 의미, 그리고 역사, 문화, 사회적인 가치를 더해 종묘제례악을 보다 깊고 넓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또한, 공연 시작 전에서는 한복 입은 로봇이 춤추는 '일무'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선조로부터 우리에게, 그리고 다시 후손에게 이어지는 기원

종묘제례악 (宗廟祭禮樂)

• 이미에 국립부산국악원 학예연구사



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 온라인 전시

<https://artsandculture.google.com/story/xwVhrFAyrTjJKg?hl=ko>

종묘제례악이 10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500여 년간 이 땅에서 연주되던 종묘제례악은 경북궁 동쪽에 위치한 종묘와 서울 국립국악원에서만 연주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파리 국립샤이오극장, 독일 베를린필하모닉 콘서트홀, 함부르크 엘프필하모닉 콘서트홀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극장에서 공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순회공연을 시작했을 정도로 쉽게 접할 수 없는 공연이기에 이번 부산 종묘제례악 공연은 반갑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부산에서 만나기 어려운 이 공연, 종묘제례악은 대체 어떤 공연일까요? '종묘'라는 단어는 많은 분이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임금 앞에 엎드린 신하들이 등장하는 사극의 한 장면을 떠올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르신들이 나들이 나오시는 종로 탑골공원 옆 유적지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종묘제례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선 '종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대 중국의 한자 해설서인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따르면 종묘(宗廟)의 '종(宗)'은 존귀하다는 의미이고, '묘(廟)'는 사당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중국에서 발달한 유교에서는 조상신을 최고의 신으로 모셨기에 존귀한 조상신을 모신 사당을 종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중국과 교류하며 유교문화가 유입되었는데, 종묘제도는 통일신라시대 때(신문왕 7년, 687) 처음 확인된 후, 고려를 거쳐 조선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종묘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이후 한양으로 천도하여 태조 4년(1395)에 건립한 조선의 왕과 왕후의 신주를 모시는 곳이며, 여기서 지내는 제사를 종묘제례(宗廟祭禮)라고 합니다.

그러면, 왕이 자신의 조상을 모신 사당과 제사가 왜 중요할까요? 조선 왕실의 종묘제례는 단순히 일반 가정에서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넘어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고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한 정치 의례이기도 했습니다. 임금은 직접 종묘에서 제사를 거행하며 역대 왕들의 공적과 덕성을 기리고 백성의 안위와 화평한 세상을 기원했습니다. 즉, 종묘는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동시에 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간이며, 이곳에서 지내는 제사는 조선 왕실의 가장 중요한 의례였습니다.

종묘제례악은 이 의례에서 사용되던 악가무를 의미합니다. 엄숙해야 할 제사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연주를 하는게 이상하다고요? 다른 문화권에

서는 춤추고 노래하며 망자를 추억하고 기쁘게 보내주는 문화가 있지만, 종묘제례악은 이와는 다른 개념의 악가무를 의미합니다. 조선시대는 예악사상(禮樂思想)을 통치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예(禮)의 본질은 ‘다름(異)’과 ‘질서(序)’입니다. 임금과 신하 등 위계와 엄격한 규범과 절차를 통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름은 계층간 분할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악(樂)의 본질은 ‘같음(同)’과 ‘화합(和)’인데, 악가무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화합시키고 선하게 인도하게 됩니다. 선조들은 상반되는 예와 악이 조화를 이룰 때 세상이 평화로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왕실 중요한 제례에서 악(樂)은 필수 요소였습니다. 제례 절차에 따라 연주되는 음악과 노래, 춤은 예악사상을 구현하는 신성하고도 장엄한 의식 중 하나였던 것이지요.

예악사상을 잘 담고 있는 종묘제례악은 위대한 선조들의 노력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조선 건국 초기에는 고려 때 유입된 중국풍의 음악을 종묘제례에서 연주하였습니다. 이에 세종은 조상들을 모신 종묘에서 중국풍의 음악이 연주된다는 것과 음악의 음양이 조화롭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고려에서 유입된 음악을 모두 폐지하고, 직접 <보태평(保太平)>과 <정대업(定大業)>을 만들며 제례악 정비에 힘썼습니다. 이후 세종의 아들인 세조는 <보태평(保太平)>과 <정대업(定大業)>의 악곡 일부를 수정하고, 선조의 문덕(文德)

과 무공(武功)의 업적을 기리는 노랫말을 다듬어 종묘제례악의 음악으로 채택하여 세조 10년(1464)부터 종묘제례에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종묘제례악은 예(禮)와 악(樂)이 조화를 이루며, 선조의 공덕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백성들의 평안과 평화롭고 올바른 세상을 기원하며 500년 넘게 이어져 내려온 음악입니다. 무대화되며 제례 의식이 생략되기는 하였지만, 음악에 담겨있는 태평성대의 기원은 변치 않습니다.

이번 공연은 종묘제례악을 연행했던 조선 왕실의 음악기관인 장악원의 계보를 잇고 있는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무용단이 출연하여 종묘제례악 전곡을 연주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조선 왕실의 위엄과 선조들의 기원이 담긴 음악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종묘제례악을 자주 접할 수 없는 관람객들을 위해 해설이 있는 공연으로 선보입니다. 김영운 전 국립국악원장이 직접 종묘제례의 의미와 절차부터 종묘제례를 거행하던 역사와 문화 등 종묘제례악이 지니는 인문학적 가치까지 종묘제례악의 모든 것을 시각자료와 해설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부산에서 10년 만에, 그리고 종묘제례악이 1395년 처음 거행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귀한 자리에서 현재에도 감동을 주는 우리 선조들의 숨결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럽의 대표 재즈현악5중주 볼로시 내한공연

8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VIP석 6만원, R석 4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유럽을 대표하는 재즈현악5중주 '볼로시(Volosi)'가 5년만에 다시 부산을 찾는다.

특히 볼로시는 지난 2018년 부산시민들과 첫 만남에서 큰 호평을 받은 후 이듬해 다시 부산을 찾아 매혹적인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비올리스트 Jan Kaczmarzyk, 바이올리니스트 Krzysztof Lason, Zbigniew Michalek, 베이스리스트 Robert Waszut, 첼리스트 Stanislaw Lason 등 폴란드 출신의 남성 연주자들로 결성된 '볼로시'는 지난 2010년 '뉴 트래디션 페스티벌(New Tradition Festival)'로 데뷔한 후 유럽 전역에서 평단의 지지와 대중의 사랑을 동시에 받아왔다. 데뷔 이듬해인 2011년에는 유럽방송연합에서 개최하는 '그랑프리 스벤토자르 스트라치나(Grand Prix Svetozar Stracina)'에서 '월드 뮤직' 부문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2012년에는 그들의 첫 앨범인 'Volosi(2011)'가 월드차트 유럽 상위 20위권에 진입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16년에는 '컬러즈 오브 오스트라바 페스티벌(Colours of Ostrava Festival)'에서 '그랑프리 체코 뮤직 크로스로드 어워드(Grand Prix Czech Music Crossroads Award)'를 수상했으며, 이듬해인 2017년에는 전 세계 1,000여팀 중 30팀만 선별하여 무대에 오르는 세계적인 마켓 위맥스(World Music EXPO)의 개막식 무대에 서기도 했다. 당시 위맥스 총괄 디렉터였던 제럴드 셸리그먼은 '볼로시는 컨템포러리 분야에서 가장 흥미롭고 다이내믹한 신예밴드 중 하나'라는 호평을 던진 바 있다. 특히 볼로시는 영국 BBC방송으로부터 '볼로시는 새로운 발견이다. 이들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에너지가 음악적, 지리적



© Dominika Szczech

경계를 뛰어넘어 완전히 거부할 수 없는 결합을 일으키는 느낌이 든다. 감히 단언컨대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그동안 우리가 흔히 갖는 현악5중주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집는 무대로 관객과 만나온 볼로시는 클래식은 물론 재즈와 록, 팝, 집시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음악적 어법을 활용하여 듣는 이의 감성을 자극해왔으며, 5인의 남성 현악연주자들이 펼치는 파워풀하면서도 다이내믹한 연주와 5개의 현악기가 표현하는 폭넓은 음역과 현악기 특유의 애절함, 때로는 넘치는 박진감과 당당함으로 관객을 사로잡아왔다.

특히 볼로시는 장르적 범주를 탈피하여 그들만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스타일을 완성해왔는데, 록의 에너지와 스윙의 깊은 감성이 충만한 재즈 즉흥 연주의 특징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악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현대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연주로 동시대 음악 애호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달 사베트

8월 17일-18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층 옥토끼석 6만원, 2층 늑대석 4만원(만 24개월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주)쌍크브릿지 1533-7857, ticket.interpark.com



독특한 상상력으로 아이들의 감성을 깨우는 작가 백희나의 그림책 '달 사베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환상적인 무대로 관객들을 찾아온다.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한 백희나 작가는 애니메이션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개성넘치는 캐릭터와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이 돋보이는 그림책을 선보여왔다. 2005년 '구름뽕'으로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백희나는 2012년과 2013년 '장수탕 선녀님'으로 한국출판문학상과 창원아동문학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2018년에는 '알사탕'이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어너리스트에 선정되었고 일본판 '알사탕'으로 '제11회 MOE 그림책저점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달 사베트'는 2010년 발간된 그의 두 번째 창작동화로, '백희나의 작품은 마법과 경이로움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라는 호평과 함께 이 작품으로 2020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ALMA)'을 수상하며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무더운 여름날 밤, 늑대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 위로 보름달이 떠 있다. 모두가 창문을 꼭꼭 닫고, 에어컨을 켜고, 선풍기를 켜고 잠을 청하는데, '뚝... 뚝...' 커다란 보름달이 녹아내린다. 녹아 떨어지는 달을 대야에 받은 반장 할머니는 '이걸로 무얼 할까?' 고민하다 사베트 틀에 담아 얼리기 시작한다. 앗, 그때, 전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정전이 되고 온 세상이 깜깜해진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밝고 노란빛이 반장 할머니 집에서 새어 나오고 할머니는 이웃들에게 달 사베트를 하나씩 나누어 준다.



© 할리퀸크리에이션즈(주)

백희나 작가는 몹시도 더웠던 어느 여름 밤, 자꾸만 데워져가는 지구를 걱정하다 '달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하는 상상에서 '달 사베트'를 구상했다고 한다. 작품 속에는 열기에 녹아내리는 달을 받아 사베트로 만들어 열대야를 극복하고,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옥토끼에게는 달맛이꽃으로 새로운 달을 만들어 준다는 환상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내용이 담겨져 있다. 작가는 '달 사베트'라는 기발한 내용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북돋워주고 한편으로는 지구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도 자연스럽게 일깨워준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밤, 시원하면서도 달콤하고 환상적인 여름밤 이야기 속으로 온가족이 함께 떠나보자.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8월 23일 **금요일** 오후 9: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기존 공연시간의 틀을 깬 저녁 9시, 평소 공연장을 찾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가 8월 23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2019년 첫 선을 보인 ‘심야음악회’는 그동안 실험

적인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들을 새로운 음악세계로 안내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백승현의 지휘로, 한여름 밤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네온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고상지가 협연자로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이번 무대의 첫 곡은 노르웨이의 국민 작곡가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제1번 중 ‘아니트라 춤(Anitra's Dance)’. ‘페르귄트 모음곡’은 우리에게 ‘인형의 집’으로 널리 알려진 노르웨이의 극작가 입센의 의뢰로 작곡된 극부수음악으로, 그리그는 이후 이 부수음악을 각각 4개의 곡을 가진 2개의 모음곡으로 만들었다. ‘아니트라 춤’은 첫 번째 모음곡의 세 번째 곡으로, 극 중 주인공인 바람둥이 몽상가 페르귄트가 아라비아 주장의 딸 아니트라 춤에 유혹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무곡이다. 관현악합주에 트라이앵글을 곁들여 동양적이며 관능적인 선율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1모음곡 중에서도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졌다.



지휘 백승현



반도네온 고상지

이어서는 바로크 시대 음악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풍부한 오케스트레이션과 섬세한 구성이 돋보이는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제1번 BWV 1066’을 들려준다. 17-18세기 프랑스 궁정무용과 그 음악을 양식한 무곡모음곡으로, 프랑스 궁전의 화

려함과 위엄이 느껴지는 서곡을 시작으로 쿠랑트, 가보트, 포틀라나, 미뉴에트, 부레, 파스피에 등 모두 일곱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곡은 누에보 탱고를 창시한 작곡가 피아졸라의 반도네온 협주곡 ‘아콩카과(Aconcagua)’로, 안데스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뜻하는 곡목처럼 웅장하면서도 가슴 벅찬 선율과 리듬을 들려준다. 특히 반도네온 협연을 맡은 고상지는 아르헨티나 ‘Orquesta Escuela De Tango Emilio Balcarce’를 수료하고 피아졸라의 뒤를 잇는 아티스트로 평가받는 일본의 세계적인 반도네온 연주자 ‘코마츠 료타’를 사사했다. 애니메이션으로 부터 영감을 받아 작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녀는 2014년 정규 1집 ‘Maycgre 1.0’을 발매,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구축했으며, 탱고의 본고장인 아르헨티나 탱고의 기법들과 악기 구성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적 어드벤처 느낌이 강하게 드러나는 특징을 지닌다. 고상지는 현재 반도네온 연주자로 활약하며 작곡가, 프로듀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4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김유빈 플루트 리사이틀

8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석 5만원, S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2년 한국인 최초 ARD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우승하며 한국관악계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플루티스트 김유빈이 부산을 찾는다.

특히 이번 무대는 세계가 인정하는 연주자들의 수준 높은 연주와 함께 세계 클래식

의 최신 흐름을 만날 수 있는 (재)부산문화회관의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마지막 무대로, 현재 국제무대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 플루티스트 김유빈의 무대로 꾸며진다.

김유빈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음악콩쿠르인 2014 제네바 국제음악콩쿠르에서 1위없는 2위, 이듬해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콩쿠르 1위에 이어 ARD 국제 음악콩쿠르에서 1위라는 유례없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8월, 세계 최정상 지휘자 예사-페카 살로넨이 음악감독으로 있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의 수석으로 전격 선임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앞서 2016년 12월에는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최연소 수석으로 임명, 이듬해 10월 종신 수석에 최종 선임되어 7년 동안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김유빈은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이반 피셔, 미하엘 잔데를링,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엘리아후 인발, 프란츠 벨저-뫼스트 등 세계적인 거장들과 호흡을 맞춘 바 있으며, 제네바 챔버 오케스트라,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플루트 김유빈



피아노 김도현 © Moonsung Hwang

보훔 심포니 오케스트라,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부천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저명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이같은 활약으로 김유빈은 2016년 월간 객석으로부터 '차세대를 이끌 젊은 연주가', 2020년 포브스코리아

'2030 차세대 리더', 2023년 포브스 아시아판의 '30세 이하 영리더 30인(30 under 30)'로 선정되며 현재 아시아 문화계에서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로 조명받았다. 김유빈은 예원학교 졸업 후 만 16세에 도블, 리옹국립고등음악원과 파리국립고등음악원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에르 상강, 클로드 드뷔시, 프랑시스 폴랑, 앙리 뒤튀유, 세자르 프랑크 등 그의 음악적 고향인 프랑스 음악으로 프로그램으로 구성, 플루티스트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피아노 연주는 폭넓은 레퍼토리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깊은 음악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도현이 맡아 김유빈과 함께 무대에 선다. 김도현은 2021 페루치오 부소니 콩쿠르에서 2위와 함께 현대작품 최고연주상을 수상하며 국제 무대에 이름을 알렸으며, 줄리어드 음악원과 클리블랜드 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거쳐 현재 동음악원 전문연주자과정에 재학 중이다.

2024 (재)부산문화회관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 IV 뇌과학자 정재승

8월 31일 토요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층 3만원, 2층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대한민국 저명한 강사의 강연과 다채로운 공연이 함께 펼쳐지는 강연형 콘서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재)부산문화회관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 네 번째 무대가 8월 31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는 시리즈 첫해였던 지난해 ‘성찰과 질문’을 주제로 시작하여 올해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인문학적 패러다임:공존’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저명인사들이 출연, 인문학이 전해주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 네 번째 무대에서는 TV 프로그램 ‘알쓸신잡’에 출연하여 쉽고 재미있는 과학이야기로 시청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갔던, 뇌과학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시민들과 만난다. 카이스트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두를 물리학으로 전공한 물리학자로,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선택)을 물리학 이론을 통해 연구하는 정재승 교수는 학생들의 필독서이자 베스트셀러인 ‘정재승의 과학콘서트’ 저자로, 특히 과학을 쉽게 풀어내며 흥미를 유발하는 동시에 과학의 중요성을 꾸준히 알리고 있다. 정재승은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박사후 연구원,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연구교수, 컬럼비아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를 거쳐 KAIST 교수로 있다.

2016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결에



뇌과학자 정재승

서 알파고가 4승 1패로 승리했다. 이는 지난 4천년간 바둑을 둔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오히려 한 수 배우고 있으며, 새로운 전문가 시대가 오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 정재승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서로 협력하고 공감하며 가치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다양성이 창의성의 본질이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 지도를 완성한 사람이 새로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다.

강연에 앞서서는 비올리니스트 황여진이 피아니스트 박민선과 함께 라흐마니노프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작품 19’ 중 3악장 ‘안단테’를 비올라 편곡으로 들려준다. 황여진은 서울예고 재학중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입학 및 졸업한 후 스위스 제네바 국립음대 석사과정, 독일 자르브뤼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최우수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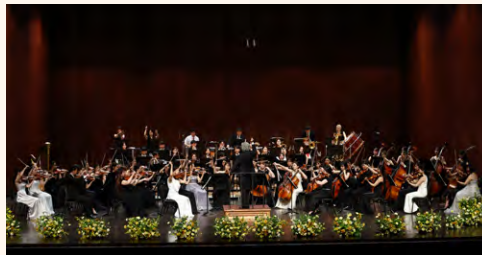
한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는 9월 29일 영화평론가 이동진의 ‘영화 연기관 무엇인가’에 이어 11월 30일 미술사학자 양정무의 ‘르네상스의 완성과 종교개혁(난처한 미술이야기)’이 계속된다.

국제신문 창간 77주년 기념 음악회 The Sounds of Busan!

9월 8일 일요일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국제신문 500-5222



지휘 오충근



국제신문교향악단



바이올린 김재원



피리 김성준



작곡 한재연



해설 송현민

올해로 창간 77주년을 맞는 국제신문의 시작과 역사를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한 ‘국제신문 창간 77주년 기념 음악회’가 9월 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1947년, 언론과 문화의 새장을 열었던 국제신문의 서막을 기념하기 위한 무대로, 2015년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아르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이어 국내 신문사로서는 두 번째로 창단한 국제신문교향악단(KOOKJE Daily Newspaper Symphony Orchestra: KSO)이 동서양의 소리가 공존하는 ‘부산의 소리’로 창간 77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한다. 올해 4월 17일 창단연주회를 통해 첫 걸음을 내딛은 국제신문교향악단은 음악예술을 통한 ‘부산 문화 르네상스’에 보탬이 되고자 국제신문 창간 77주년에 맞춰 출범했다. 국립부경대학교 석좌교수이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인 오충근 지

휘자가 초대 예술감독을 맡았으며, 부산의 우수한 단원을 주축으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형식으로 운영된다.

오충근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그동안 교향악단들이 선보여온 서곡-협주곡-교향곡이라는 공연 형식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하여, 1부 ‘New HYBRID’(뉴 하이브리드), 2부 ‘New WAVE’(뉴 웨이브)로 구성된다. 특히 서양의 클래식음악과 한국의 전통음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로,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피리 연주자 김성준이 협연자로 출연하며, 월간 <객석> 편집장이자 부산대학교 외래교수인 음악평론가 송현민이 해설을 맡았다.

1부 ‘New HYBRID’는 클래식 음악과 한국의 전통음악이 만나며 확장되는 순간으로, 과거 임금의 행차를 알렸던 전통음악 ‘대취타’가 오케스트라와 어우러지는 작곡가 한재연의 위촉초연곡인 ‘대취타 주제에 의한 환상곡’으로 77년 역사를 지닌 국제신문의 장대한 시작을 알린다. 이어지는 곡은 독일 작곡가 슈타우다허의 ‘하루 같은 인생’으로, 부산대

학교 교수로 있는 김성준의 피리 협연을 통해 동양과 서양, 옛 음악과 지금의 음악이 만나는 하이브리드적인 감수성을 느낄 수 있다. 1부 마지막 곡은 작곡가 최성환이 편곡한 ‘아리랑 환상곡’으로 국악연주자 12인이 국제신문교향악단과 함께 동·서양음악의 만남으로 화합과 평화에 대한 기원을 선사한다.

2부 ‘New WAVE’는 77주년을 맞는 국제신문이 일으킬 ‘새로운 물결’을 기대하게 하는 순간으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선율을 모티브로 한 ‘카르멘 판타지’(왁스만 곡)와 협연자의 기교가 빛을 발해 화려한 연주력을 보여줄 사라사테의 ‘치고이너바이젠’을 톨루즈 카피톨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의 협연으로 만날 수 있다. 이어서 사랑의 위대함을 느끼게 하는 차이콥스키 ‘로미오와 줄리엣’ 서곡으로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26회 정기연주회

청춘 歌樂

9월 7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휘 이동훈



사회 신찬균



25현가야금 김소정



민요그룹 오미자(O!MZ)



소리 오단해



국악창작그룹 뮤르(MuRR)

지난 40년간 전통음악 계승 발전 및 창작음악 개발을 통하여 대중화, 현대화에 힘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젊은 연주자들과 함께 하는 특별한 무대 ‘청춘 歌樂’으로 시민들과 만난다. 전통음악에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감각을 전달하고자 마련한 이번 무대는 ‘청춘 歌樂, 우리음악이 젊어진다’라는 부제로, 신시대 소리꾼 오단해(판소리), 국악창작그룹 뮤르(MuRR), MZ세대 민요그룹 오미자(O!MZ)와 젊은 가야금 연주자 김소정이 협연하고 이동훈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열정적인 무대를 펼친다. 특히 이번 무대는 국악관현악곡에서부터 가야금협주곡, 경기민요, 판소리 등 전 곡이 모두 창작곡으로, 부산국악방송 신찬균 PD가 유쾌한 해설로 관객의 이해를 돕는다.

첫 곡은 국악관현악 명곡으로 꼽히는 이해식 작곡가의 젊은 이를 위한 춤 ‘바람의 말’. 1990년 발표된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위촉곡으로, 이해식 선생이 전국을 다니며 직접 채집한 다양한 토속민요와 굿음악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바람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역동적인 선율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이어지는 무대는 25현가야금 협주곡 ‘아나톨리아, 고원에 부는

바람’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인 김소정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민요를 기반으로 한 4인조 그룹 ‘오미자(O!MZ)’는 이번 무대에서 민요 ‘아리랑’, ‘청춘가’, ‘창부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놀자, 아리랑!’, ‘노세노세’, ‘위시(Wish!)’를 메들리로 들려준다. ‘오미자(O!MZ)’는 김영은을 리더로 박세진, 이가현, 김진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뛰어넘어 MZ세대의 다채로움을 전례 없는 음악적 감성으로 녹여내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로 있는 소리꾼 오단해는 사시사철의 풍경과 삶을 노래한 단가 ‘사철가’와 창작판소리 ‘History’를 들려준다. 오단해는 2021년 방영된 JTBC ‘풍류대장’ Top10에 선정되며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다양한 장르, 뮤지션과 협업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마지막 무대는 국악창작그룹 ‘뮤르(MuRR)’의 무대로, 그들의 네 번째 싱글앨범 수록곡인 ‘가리봉 블루스’와 동명의 가요를 뮤르만의 스타일로 풀어낸 ‘누구 없소’를 들려준다. 뮤르(MuRR)는 국가무형문화재 피리 정악 및 대취타 전수자 허세뜸과 지혜리로 이루어진 실력과 여성 2인조로, 모든 곡을 직접 창작, 기획, 연출하는 진정한 멀티 플레이어다.



국악청적그림 뮤르 (MuRR)

판소리 오단해



민요그룹 오미자 (O!MZ)

25현가야금 김소정

\\ PROGRAM \\

젊은이를 위한 춤 '바람의 말' \\ 아나톨리아, 고원에 부는 바람
놀자 아리랑 - Wish! - 노세노세 \\ 사철가 - History \\ 가리봉 블루스 - 누구 없소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 이동훈
사회 신찬균

2024. 9. 7. 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1층) 20,000원 S석(2층) 10,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6000(ARS 1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MTMO SEASON 2024



2024 부산비엔날레 어둠에서 보기 SEEING IN THE DARK

8월 17일(토)-10월 20일(일)

부산현대미술관, 부산근현대역사관, 한성1918, 초량재

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
503-6111, www.busanbiennale.org



세계적 규모의 격년제 통합미술제인 2024 부산비엔날레가 8월 17일 화려한 개막을 시작으로 두 달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는 전시 개막을 2주 앞당겨 9월에 개막되던 행사를 8월에 개최하면서 부산을 상징하는 여름에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더하고 휴가기간 부산을 찾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부산비엔날레는 지난 1981년 부산지역 작가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지로 탄생한 대한민국 최초의 비엔날레인 부산청년비엔날레를 전신으로, 1987년 시작된 바다를 배경으로 한 부산국제바다미술제, 그리고 1991년 첫 발을 내딛은 부산야외조각대전을 통합,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로 개최되어 오다 지난 2002년부터 부산비엔날레라는 명칭으로 현재까지 격년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부산비엔날레는 안정된 전시 운영과 탄탄한 기획력으로 '웰-메이드 전시'로 평가받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시행한 비엔날레 정부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고, 영국의 미술 전문지 <프리즈(Frieze)>에서도 세계 10대 전시로 소개된 바 있다.

비엔날레 최초 공동 전시감독 선정

이번 2024 부산비엔날레에서는 부산비엔날레 최초로 두 명의 공동 전시감독이 선정되어 화제가 되었다. 벨기에 출신



2022 부산비엔날레

의 필립 피로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슈테델슐레 미술대학의 미술사 교수이며, 베를린의 그로피우스-바우의 협력 큐레이터, 미국 버클리대학교 미술관과 퍼시픽 필름 아카이브의 시니어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동서양을 넘나드는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오고 있으며, 부산비엔날레와는 지난 2022년 큐레토리얼 어드바이저로 함께한 바 있다. 또 다른 전시감독인 베라 메이는 영국의 소아스런던대학교에서 미술사&고고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으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위치한 테 투히(Te Tuhi) 시립 공공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도 활동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NTU 싱가포르 현대미술 센터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하였고, 캄보디아 프놈펜, 프랑스 파리, 태국 방콕 등에서도 독립 큐레이터로서 전시를 기획한 바 있다.

어둠에서 보기 Seeing in the Dark

올해 2024 부산비엔날레의 전시 주제는 ‘어둠에서 보기 (Seeing in the Dark)’. 관습적으로 유럽의 계몽주의는 ‘빛’과 관련한 것으로 여겨왔고, 지식은 가시성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믿음을 가져왔다. 하지만 2024 부산비엔날레는 ‘어둠’을 쫓아내는 대신, 어둠의 깊이야말로 포용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장치로 바라보고자 한다. 이번 2024 부산비엔날레 ‘어둠에서 보기’는 ‘해적 계몽주의’의 개념을 한 축에,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개념을 다른 한 축에 두고, 둘 사이의 지적 공간에서 펼쳐진다. ‘해적 유토피아’는 정부 또는 거대 자본의 손이 닿지 않는 자치 사회의 초기 형태로, 다문화적이고, 정신적으로 관용적이며, 성적으로 자유롭고, 때로는 순수한 평등주의 사회를 포용한다. 모든 의사 결정은 문화나 피부색에 따른 구분 없이 가장 뛰어난 해적들로 이루어진 협의회에서 협상과 회합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 전시 개념의 핵심 인물이기도 한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David Graeber)는 해적들의 이러한 실험이 유럽 계몽주의 운동에서 발견되는 가장 긍정적인 측면의 원형이라고 바라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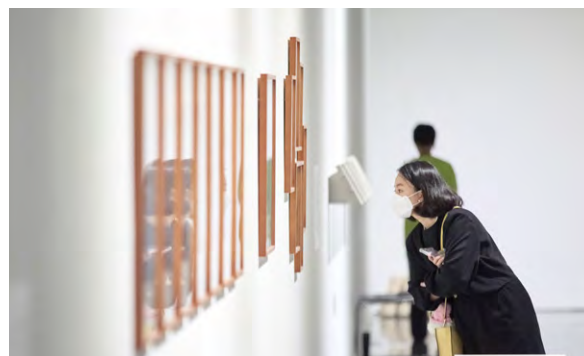
불교의 ‘도량(道場)’ 역시 세속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공동체 안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의사를 결정한다. 부처의 모습은 ‘언제나 이미 비어있는 기표’이자, ‘정체성을 비워낸 정체성’으로 이는 이주민이자, 난민이자, 프롤레타리아 반역자이자, 낙오자이자, 해적으로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해적이 암흑의 역사 속에서 국가의 눈을 피해 활동해야 했다는 점, 그리고 수행자들이 고통의 종결을 향하는 길을 찾는다는 점에서, 어둠은 해적 계몽주의와 불교의 깨달음 모두에 닿아있는 요소이다. 두 전통 모두 풍부한 시각적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유쾌한 방식으로 서사와 연결되어 있다.

필립 피로트와 베라 메이 두 전시감독은 이번 전시주제를 두고,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지위나 계급에 상관없이 소통하며 섞여서 생활하는 해적들의 모습이 항구도시 부산이 가진 디아스포라적 지역성과 정직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과 맞닿은 지점이 있다고 보았다.

총 36개국 62작가/팀 참가

이번 비엔날레는 총 36개국 62작가/팀(78명)이 참가한다. 베트남의 응우옌 프엉 린&트엉 꾸에 치(Nguyễn Phương Linh & Trương Quế Chi)이나, 캄보디아의 탄 속(Than Sok), 카니타 티스(Kanitha Tith) 등과 같이 서구 열강의 지배, 사회 권력 구조나 노동 문제와 같은 은유적 어둠을 내포한 작품이나, 홍이현숙과 같은 직접적으로 어둠을 작품에 녹여내어 시각이 제한된 상황에서 청각과 촉각 등을 이용하는 체험형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해적 계몽주의’의 기초가 된 베치미사라카(Betsimisaraka) 왕조의 후손인 마다가스카르 출신의 디나 노메나 안드리아리만자카(Dina Nomena Andriarimanjaka)나, 인종과 종교 등 복잡한 갈등으로 분쟁 중인 팔레스타인, 이란과 같은 중동 작가의 작품들도 부산을 찾는다.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세네갈, 자메이카, 코트디부아르, 토고와 같은 아프리카의 영상, 설치 등을 포함한 현대미술 작품도 이번 부산비엔날레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2024 부산비엔날레의 전시장은 주 전시관인 부산현대미술관을 비롯하여 부산의 원도심 일대로 결정됐다. 그동안 지역의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전시장으로 활용해 온 부산비엔날레는 부산근현대역사관의 금고미술관을 활용하고, 인근 한성1918에서는 사운드 프로젝트 특화 전시가 열린다. 또한, 초량의 옛 가옥인 초량재를 전시관으로 활용, 부산의 맛을 더했다. 이밖에 특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팬스타 크루즈와 협업하여 크루즈 내 영상, 설치작품과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2 부산비엔날레

극단 옆집우주 귀중

연극 <갈림길에 선 여자>



고주영 공연예술 독립기획자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6월 22일, 토요일 오후에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무대에서 ‘단 1회’ 공연된 <갈림길에 선 여자>를 본 관객입니다.

서울에 살며 공연 만드는 일을 하는 저는 누가 불러주지 않아도 강렬하게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공연을 보러 지역으로, 가끔은 해외로 관람여행 떠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영화도 미술도 아닌 ‘연극’을 보기 위해 부산을 찾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이 작품을 포함해 일주일 간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를 보기 위해. 2년 전쯤 우연한 기회에 돈 없고 ‘뺨’ 없는 여성연극인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축제를 알게 되었고, 축제의 지향과 프로그램도, 나아가 디자인도 어쩐지 취향저격 당해 관람으로 연대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던 차, 부산 사는 지인의 SNS에서 본 “**부산 연극이 낳은 괴물 신인, 옆집우주의 최신작**”이라는 홍보문구에 꽂혔습니다. 요즘 세상에 좀처럼 보기 힘든 저 문구... 공연을 보다 보니, 공연 속 뺨고 뺨은 나 연출의 머리에서 나온 문구더군요. 그런데, 그 문구에 끌린 것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연은 그 ‘괴물 신인’ 극단 옆집우주가 꿈에 그리던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갈림길에 선 여자’의 ‘단 1회’ 무대를 한 시간 앞둔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시간에 맞춰 출근한 사람은 학교에서 시켜 억지로 <인형의 집>을 읽는 조명·음향 오퍼레이터, 그리고 갓 연극을 시작한, 아무도 없을 때 무대 위에서 <인형의 집> 노래의 대사를 연습하는, 배우 지영, 두 사람뿐. 연출도, 유일한 선배 배우도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느라 지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선배가 무대 반출한 무대 세트조차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세트를 들고 출근한 선배는 자기 소품도 안 챙기고 첫 대사를 외우지도 못한 주제에 대본도 안 들고 옵니다. 하물며 공연팀 누구도 대본을 안 가지고 있단다. 조명이 전구가 나간 정도는 관객도 눈치 못챌 아주 사소한 일이고요.

밖에는 이미 관객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오는데, 준비되지 못한, 과연 공연을 할 수나 있을지 걱정되는 이 연

극인들은 당장 ‘수습’은 못할망정 이제 와 ‘과정’을 밟기 시작합니다. 대본과 작가에 대한 불만, ‘페미니즘 연극’을 하려고 했는데 ‘연극’은 안 팔리고 ‘페미니즘’만 팔리는 상황, 그럼에도 ‘페미니즘’을 입 밖으로 내기 어려운 상황, 부산에서 연극-예술하기의 어려움 등등… 준비되지 않음의 이유는 점점 확장됩니다.

페미니즘 연극을 하는데, ‘페미니즘’ 연극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관객들에게 정당하지 않은 판단의 근거로 작동할까봐, 혹은 반대로 다양성과 포용성의 시대에 대 사회적 명분을 위해 공공의 영역에 ‘구색’을 맞춰주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하면서도, ‘연극’으로는 평가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면서, 정작 1시간 뒤의 ‘연극’에는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 반영적이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연출이 그토록 원하는 ‘서울 연극계’, 혜화동 상황은 글썽요, 뭐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국립극단에서 젠더프리 캐스팅을 했다”고 해서, 무대와 객석의 모두가 페미니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페미니즘을 이용”하네 마네, “부산에서는 ‘연극’하는 애들이 아니라 ‘페미니즘’ 연극하는 애들이라는 오해를 낳는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 무대 위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네 글자를 수없이 거론하고, 창단한 지 겨우 3년차인데 ‘부산시민’회관과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에게 선택 받아, 20대 여성 관객뿐 아니라 꼬마아이부터 머리 희끗한 관객까지 다양한 관객을 앞에 두고 공연하는 모습이 ‘서울 연극인’인 저에게는 더 신선하고 가능성이 있게 느껴졌습니다.

‘국립’의 무대에 선다고 해서 그 배우들, 스태프들이 다른 일 안 하고 “연극에(만) 미쳐서 뻥세계 할”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서울연극제’에 초청되면 얼굴과 이름이 알려지고 부와 명예가 뒤따르는 ‘출세’를 할 거라고 기대하는 연극인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서울 연극은 사이즈가 다르다”고요? 눈에 띄는 건 나라나 대기업이 만든 공연, 연예인을 앞세운 상업연극일지 모르지만, 50명 남짓의 좌석만을 가진 소극장이 대학로에만 100개가 넘는 걸요.

연출이 ‘출세’ ‘성공’ ‘서울’, 이런 단어를 뱉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우리는, 왜 지금껏 연극을 하고 있을까. 내가 가진 신념, 가치관과는 상관없이 “홍상수” 스타일이어도 좋으니 “황정민”처럼 뜨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걸까, “서울연극제 심사위원 정복 썸” 같은, 연극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인정 받고 싶은 걸까, 서울에서 일하고 예술인 패스도 발급받았으니 이제 그만둬야 하는 건가. “연극



은 자해”라는 걸 알면서 왜 여전히 하고 있을까?

“당신은 나더러 사소하고 쓸데없는 일에만 몰두하여 하루를 보낸다면서, 참 이리석은 아가씨라고 그랬죠… 그럼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가요?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극 중 ‘노라’)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지금, 연극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일이 아닐까요. 남을 의식하고 비교하는 데서 비롯되는 욕망과 욕구, 허울만 좋은 출세, 성공, 서울, 그 따위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움직이는 이유 말입니다. ‘여성’이라는 성별 구분을 넘어서, 성적 지향, 나이, 지역, 종교 등등 끝도 없는 기준으로 사회가 그어대는 선을 없애고 한 명 한 명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확장된 페미니즘의 정의를 연극 만들기에 담아내는 것, 그것을 숨기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솔직한 목소리로, 억박 지르지 않고, 과정과정을 허투루하지 않고, 사소하고 쓸데없는 것에 몰두하며,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당연한 방식으로 연극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극을, 우리의 삶을 여유있게 만드는 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야 좋은 공연이 나오”죠.

옆집에 차곡차곡 만들어질 우주가 어떤 길을 택해 걸어갈지를 기대하며, ‘괴물신인’이 ‘믿보’가 되는 과정을 확인하러 기꺼이 또 부산행을 택하겠습니다.

※ “ ”은 공연 대사의 인용입니다.

두 개의 서양미술 명화전 원화가 주는 감동 '생생'



박창희 경성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스토리랩 수작 대표

© 배준익

명화(名畵)를 본다는 생각에 아침부터 기분이 약간 들떴다. 쉽게 닿지 않던 미술관 나들이다. '기분 전환' 삼아 가볍게 찾아간 발걸음이 돌아올 때 자못 심오해져 있었다. 명화의 잔상이 무뎠던 의식을 깨웠고 여울지는 행복감에 기분이 그냥 좋아졌다. 놀라운 예술 체험이다.

전시회는 따로 따로 두 건이다.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서양미술 400년, 명화로 읽다: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7. 2-10. 27)와 부산시민회관에서 펼쳐진 '구스타프 클림트전' (7. 5-8. 11)이 그것. 장소와 주제는 달랐지만 '서양미술'이란 테두리 안이라 낯설음이 덜하다. '서양미술 400년전'이 잘 차려진 뷔페 같은 식탁이라면, '클림트전'은 개성만점의 밥상 같았다.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는 17세기 네덜란드 황금기 미술부터 빅토리아 시대 영국 라파엘 전파와 낭만주의, 인상파, 큐비즘, 컨템포러리 아트에 이르기까지 400년에 걸친 서양 미술사 걸작을 섹션별로 전시했다. 등장 화가 면면이 화려하다. 영국의 국민 화가 윌리엄 터너, 바르비종파의 장 프랑스와 밀레, 사실주의 작가 귀스타브 쿠르베, 인상파의 클로드

모네, 에드가 드가, 알프레드 시슬리, 후기 인상파인 폴 시냐크, 루시엔 피사로, 폴 세잔, 반 고흐까지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작가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나비파인 피에르 보나르, 야수파인 마티스, 큐비즘의 피카소를 비롯해 20세기 컨템포러리 미술의 거장 프란시스 베이컨, 앤디 워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까지 선보인다. 서양미술을 꿰고 미술상식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봐줘야 할 전시회다.

전시 작품 143점 모두 빼어난 수작이지만, 인상주의 섹션에 소개된 모네의 '봄'은 관람객의 발길을 오래 붙잡았다. 모네의 '봄'은 생동감 넘치는 터치로 자연의 빛을 순간 포착해 연초록 봄의 환희를 담았다. 보고 있자니 기분이 발랄해지고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았다. 빈센트 반 고흐의 목탄 드로잉 '늙은 남자의 초상'은 고흐의 삶과 고뇌가 투영된 듯 하여 쉽게 지나칠 수 없었다. 매부리코 남자의 인상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보고 있자니 고흐의 생애를 담은 돈 맥클린의 노래 '빈센트'가 떠올랐다. 20세기 아방가르드 미술의 상징인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은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였다. 4점의 판화와 1점의 파스텔화가 전시되어 있는데 말기에 그렸다는 파스텔화는 거장의 깊은 경륜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는 많은 볼거리와 인기 탓인지 평일에도 관람객들이 북적거렸다. 모두 진지하고 행복한 발걸음 이었고 표정에서 생동감이 피어났다.

한상 푸짐한 밥상을 받은 듯 포만감에 젖은 채 부산시민회관의 ‘구스타프 클림트전’을 보러 갔다. 19~20세기를 풍미한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1862~1908)는 파블로 피카소, 폴 세잔과 함께 20세기 가장 위대한 미술가로 꼽힌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은 ‘키스’, ‘물뱀’, ‘유디트’ 등 50여점인데, 모두 특수 제작된 레플리카(복제) 그림이다. 붓 터치와 색감 등이 그대로 복원되어 일반인들은 원화와 거의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원화인줄 감쪽같이 속았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어쨌거나 클림트의 진수를 느끼기엔 부족함이 없다.

전시는 작가의 삶과 작품세계의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아카데미즘·역사주의(1862~1896)-분리주의자로의 전환기(1897~1900)-황금시기(완숙기, 1901~1908)-화려한 양식(1909~1918), 총 4부로 나눠 꾸며졌다. 막연히 알았던 클림트의 미술세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

자타가 공인하는 클림트의 대표작은 ‘키스’다. 흥미진진하게 갤러리를 돌아다니다 누군가 놀라운 것을 발견한 듯 속덕였다. “그 유명한 키스가 여기 있네!” 관람 동선을 바꿔 그 소리를 따라가자 한 쌍의 남녀가 황금빛 망토에 둘러싸여 애처롭게 입맞춤을 하는, 황금빛의 그림이 눈앞에 다가왔다. 순식간에 밀려드는 황금빛의 경이로움. 나도 모르게 조용히 속삭였다. ‘이게 키스구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채만으로



도 사랑의 환상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속엔 애처로운 사랑이 가져올 위태로움도 포개져 있었다.

클림트는 역사상 여성의 세계를 가장 잘 표현한 화가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빈에 살고 있던 사교계의 여성들이었다. 여성의 이미지를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게 그리는 클림트에게 부유한 사업가들은 아내의 초상화를 부탁하려고 줄을 섰을 정도로 그는 초상화가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클림트는 평생 혼인하지 않고 많은 여인들과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클림트의 미술품은 비싸기로 유명하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물뱀Ⅱ’는 2013년 러시아의 억만장자가 소더비 경매사를 통해 1억 8,380만 달러(약 2,351억 원)에 구매해 화제가 됐다. 클림트 작품 중 가장 고가다. 클림트의 유작 ‘부채를 든 여인’은 지난해 열린 유럽 경매에서 8,530만 파운드, 한화 1,420억 원에 낙찰됐다.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에 공개된 143점은 모두 원화(原畵)라고 한다. 원화라는 이야기를 듣고 작품을 보자 느낌도 달라졌다. 그림의 질감과 분위기가 새롭게 다가오고 원작자의 체취가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이들 원화의 작품값은 대략 계산해도 수천억 원에 달할 것 같다. 결국 그림을 쟁취하는 사람은 돈 많고 용기 있는 부자겠지만, 소유가 아니더라도 원화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느끼는 자리는 종종 마련된다. 명화 전시회를 통해 원화가 주는 고유한 질감과 가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림을 가진 거나 다름없다.

‘클림트전’을 보고 나온 한 중년 여성은 입구에 비치된 클림트의 ‘키스’ 복제품을 구입했다. “어디 쓸 거냐”고 물었더니, “무뚝뚝한 우리집 남편이 보면 좋겠다 싶어 아파트 거실에 걸어두고 싶다”고 말했다. 비닐 포장에 싸인 작품 속 연인이 웃는 듯했다.

- 서양미술 400년, 명화로 읽다 :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7월 2일(화)-10월 27일(일)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 구스타프 클림트 레플리카展
7월 5일(금)-8월 11일(일)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서양미술 400년, 명화로 읽다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일 시 | 7월 2일(화)-10월 27일(일) 전시실
입 장 료 | 성인(20세 이상) 2만원
 청소년(14~19세) 1만6천원
 어린이(3~13세) 1만2천원
문 의 | ㈜가우디음어소시에이츠 1661-1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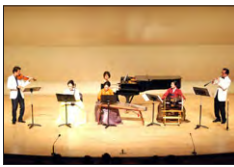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립 미술관인 요하네스버그아트 갤러리의 소장품 145점을 소개하는 기획전.

오늘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공공 근현대 미술관인 요하네스버그 아트 갤러리는 17세기 네덜란드 황금기의 작품은 물론 18~19세기 영국과 유럽 미술 거장들의 작품과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3만여 점이 넘는 작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아프리카의 근현대 명작을 소장한 미술관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전시는 서양미술의 전반과 아프리카 미술을 소개하는 블록버스터급 전시로 그 이름만으로도 유명한 작가들의 원화와 판화, 조각 등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제1245회 MBC목요음악회 **HOT SUMMER 퓨전국악콘서트**

일 시 | 8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 의 | (사)문화도시부산네트워크 760-1494



국악을 기반으로 한 퓨전국악밴드로, 신선하고 새로운 공연의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 온 젊은 예술 '날라리와 쟁이'의 무대.

태평소(날라리)와 아쟁(쟁이)을 중심으로, 부산 최고의 합한 연주자들이 모여 결성된 '날라리와 쟁이'는 그동안 부산바다축제, 부산꽃축제, 영화의전당 두레라움 야외콘서트, 금정산성축제 등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에 참여해왔다. 특히 실용음악 사운드가 더해진 창작곡들을 꾸준히 발표하면서 관객들에게 적극 다가가고 있다.

- 아나운서/김민지 • 레퍼/앤드와이
- 소리/김수민

J Choir 제2회 정기연주회 **안톤 부르크너 탄생 200주년 기념 음악회**

일 시 | 8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5세이상관람, 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락 010-5468-4658



정제된 화음, 음악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을 추구하는 J Choir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20년 지휘자 전진을 중심으로 창단된 J Choir는 지난해 가진 첫 번째 정기연주회에서 멘델스존의 교향곡 제2번 '찬가(Lobgesang)'를 부산콘서트오케스트라와 함께 부산 초연으로 연주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르크너 탄생 200주년을 맞아 그의 작품 'Mass 제2번'을 부산 초연으로 들려준다. 특히 이 곡은 목관악기와 호른, 트롬본과 함께 8성부 혼성합창단을 위한 곡으로, 깊은 신앙심과 장엄한 분위기를 담고 있다.

- 지휘/전진 • 피아노/이경미
- 연주/부산콘서트오케스트라

썸머 무비 콘서트

일 시 | 8월 17일 토요일 오후 4:00 대극장
입 장 료 | VIP 11만원, R석 9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 의 | (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02-6292-9368, 9370



한여름 더위를 날릴 단 하나의 종합애니메이션 콘서트 '썸머 무비 콘서트'.

디즈니, 픽사, 드림웍스, 지브리,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신강강자 '코믹스 웨이브 필름' 등 유명 만화영화 제작사들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OST를 풀편성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인어공주, 라이온킹, 피노키오 등 고전 명작부터 겨울왕국, 인사이드 아웃 2 등 최근 인기작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OST를 들려준다.

- 지휘/최영선
- 연주/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 바이올린/김희진 • 색소폰/조세형
- 피아노/정다슬

UKRAINE 레전드 뮤지션과 함께하는 전쟁, 사랑, 그리고 평화 기원 콘서트 **2024 Friendship Concert**

일 시 | 8월 14일 수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 장 료 |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 의 | (주)다소니 328-9998



교육 경력 30년의 대표자(지휘자)와 지역 청년 전문예술가를 중심으로 결성된 후 국내외의 다양한 국제교류음악회 활동을 펼치고 있는 IYSO 오케스트라가 우크라이나 뮤지션을 초청, 마련

하는 특별한 무대.

'전쟁, 사랑, 평화'를 주제로 하여 우크라이나 리비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연주자와 국내에서 활동하는 솔리스트/연주자, 프로 오케스트라 단원, 그리고 부산지역 장애예술인들로 구성된 위글 위글양상불 단원들이 특별출연, 음악을 통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 음악감독, 지휘/김리나 • 악장/이리나

작곡동인 SEUM 제13회 정기연주회 음악극 **이상의 이상한 이야기 '황소와 도깨비'**

일 시 | 8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W엔터테인먼트 010-7600-4514



음악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같이 연구하며 더 나은 창작 활동을 펼치기 위해 부산의 작곡가들이 의기투합하여 결성한 작곡동인 세움의 음악극 '이상의 이상한 이야기-황소와 도깨비'.

작가 이상의 유일한 동화 '황소와 도깨비'를 원작으로 한 이번 무대는 다채로운 창작음악으로 구성된 독창적인 콘텐츠로, 현대인의 개인주의 성향을 넘어서 '우리', '돕고 사는 사회'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 극본, 연출/이창원
- 작곡/진소영, 권태우, 조혜선, 김은진, 차성은, 최예린, 배성운, 이신원, 원세연, 이현석, 유고은비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제27회 정기연주회
현악합주로 찾는 19세기와 20세기 로맨틱

일 시 | 8월 25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예술기획 010-4909-7444



1993년 경성대학교 임병원 교수와 그의 제자들로 창단한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는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현악합주의 선명하면서도 깊은 음색을 이용한 연주를 들려주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소규모 편성의 관현악, 협주곡 무대도 선보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19~20세기의 작곡가들의 곡을 현악합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레스피기/고풍적 춤곡과 아리아 모음곡 제3번
야나체크/현을 위한 모음곡
차이콥스키/안단테 칸타빌레 작품 11
보르딘/현악4중주 제2번 3악장 등

2024 (재)부산문화회관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 IV **뇌과학자 정재승**

일 시 | 8월 31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 장 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TV 프로그램 '알쓸신잡'에 출연하여 쉽고 재미있는 과학이야기로 시청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갔던 뇌과학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시민들과 만난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 정재승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서로 협력하고 공감하며 가치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다양성이 창의성의 본질이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지도도를 완성한 사람이 새로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다.

- 비올라/황여진
- 피아노/박민선

센토챔버소사이어티 제13회 정기연주회
Dvořák!

일 시 | 8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올해로 서거 120주년을 맞은 체코의 국민작곡가 드보르자크의 작품으로 꾸미는 센토챔버소사이어티 정기연주회. 부산시향 부작장 이은옥을 주축으로 구성된 센토챔버소사이어티는

음악을 통한 연주자와 청중의 교감을 중시하는 실내악 단체로, 2011년 창단 후 작은 편성의 실내악에서부터 현악합주에 이르기까지 매년 다양한 형태의 연주회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바이올린1/이은옥, 박은경, 권순지, 시명운, 성현이, 홍지수
- 바이올린2/서은아, 이현지, 박상미, 신효은, 주해리
- 비올라/이성호, 손주연, 천재현, 권덕진
- 첼로/서성은, 윤주연 • 콘트라베이스/윤민우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4회 정기연주회
천사들의 노래

일 시 | 9월 7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3천원, S석 2천원(만 6세 이상 관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난해 창단 50주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50주년을 시작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4회 정기연주회 '천사들의 노래'.

지난 7월, '하계합창캠프'를 통해 단원들의 화합과 실력을 다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천경필 수석지휘자의 지휘로 다채로운 합창무대를 선사한다.

1부 무대에서는 한국 전통 리듬과 정서를 잘 반영한 박지훈 곡의 '반딧불 미사'에 이어 '비목', '산유화', '코스모스' 등 한국가곡을 들려준다, 특히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박은주가 특별출연, 한국가곡 및 뮤지컬 넘버로 관객과 만난다. 박은주 교수는 유럽의 음악 잡지 Opernwelt에서 '노트라인 베스트 팔렌 브레멘, 함부르

2024 창작연희 The늬름 영남의판
치고 받고

일 시 | 8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초대(관람 연령 제한 없음)
문 의 | 창작연희 The늬름 010-7153-5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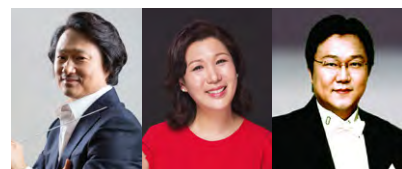
전통예술의 계승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시도, 기발한 도전으로 전통연희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창작연희 The늬름의 무대.

창작연희 The늬름은 진주·삼천포 12차 농악, 승전무, 승무, 처용무, 가락오광대 등 무형문화재 이수자, 전수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번 무대에서는 경상도 지역의 대표적인 농악을 선보인다. 특히 농악마다의 서로 다른 복색, 대표적인 장단과 가락을 통해 서로 다르면서도 하나인 경상도 농악의 세계로 관객들을 안내한다.

단체명인 '더늬름'은 판소리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로, '제자가 스승에게 배운 소리를 자신의 색깔을 더하고 다음 세대가 부르는 대목'을 의미한다.

크 주 최고의 소프라노', 독일 중앙지 Frankfurt Allgemeine에서 올해의 'Discovery'로 선정됐으며,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다수의 오페라하우스에서 주역가수로 활동해왔다. 2부에서는 필리핀, 아프리카, 미국 등 수준 높은 세계 합창음악이 펼쳐지며, 즐거운 안무와 아름다운 선율로 한국 한창곡을 들려준다. 2부 무대에서는 김태경 지휘자가 이끄는 수영구소년소녀합창단이 특별출연하여 또 다른 색깔의 합창음악을 들려준다. 2009년 창단된 수영구소년소녀합창단은 현재 50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동요, 뮤지컬, 클래식, K-POP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 지휘/천경필(수석지휘자)
- 특별출연/소프라노 박은주
수영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태경)
- 신디사이저/김보은
- 타악기/김진훈, 김은호



매직드로잉 가족극 **두들깁**

일 시 | 8월 17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8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5만원(24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브러쉬씨어터 1600-8534



드로잉과 비주얼 아트와의 만남으로, 낙서들이 살아 움직이는 마법을 통해 관객들을 상상력의 세계로 안내하는 매직드로잉 가족극 '두들깁'.

매직드로잉이란 화이트보드 위에 그림을 그리며 스크린을 동시에 활용하는 제작기법을 의미하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거대한 화이트보드 벽에 그려진 동물들이 프로젝터 영상과 만나 움직이고 낙서들이 하나의 그림이 되는가 싶다가도 금세 지워지고, 또 다시 채워지면서 끊임없이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특히 매직드로잉과 더불어 신나는 라이브 연주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지브리&디즈니 OST FESTA

일 시 | 8월 25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문 의 | 아트인뮤직 02-525-4420



영화보다 빛이 나는 영화음악을 만날 수 있는 '지브리&디즈니 영화음악 FESTA'.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원한 뮤즈이자 영화음악의 세계적인 거장 히사시 조의 대표곡에서부터 디즈니 명곡 커버 영상으로 화제가 된 보컬리스트 이희주가 들려주는 디즈니 OST까지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화제작 '엘리멘탈' OST 'Lauv-Steal The Show'와 디즈니 100주년 기념 최신작 'WISH'의 'This Wish'도 이번 무대에 만날 수 있다.

- 지휘/백윤학
- 연주/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바이올린/박진희 • 마림바/김하영
- 보컬/이희주

디즈니 & 픽사 OST 콘서트

일 시 | 8월 18일 일요일 오후 4:00 **대극장**
입 장 료 | VIP 11만원, R석 9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 의 | (사)밀리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02-6292-9368, 9370



전 세계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월드 디즈니'와 그 자회사인 '픽사'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속 음악을 대규모 오케스트라의 생생한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디즈니 & 픽사 OST 콘서트'.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뮤지컬 '팬텀', '마타하리', TV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3'에 출연하고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수많은 공주들의 주제곡을 커버하여 화제를 모은 뮤지컬 배우 김예은과 색소폰니스트 김창윤이 무대를 함께 꾸민다.

- 지휘/최영선
- 연주/밀리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 뮤지컬배우/김예은 • 색소폰/김창윤

연극 축하케이크

일 시 | 8월 30일 금요일 오후 8:00, 31일-9월 1일 토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만 12세 이상 관람)
문 의 | 극단 잠방 070-8019-1519



가족 간의 갈등을 소재로 세대 갈등, 성별 갈등을 이야기하며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극단 잠방의 '축하케이크'.

지난 2019년 초연된 '축하케이크'는 2020 밀양공연예술제 대학극전 작품상·우수연기상을 수상하고 2022 부산국제연극제 청년지원챌린지에 선정된 바 있다.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하면서도 결국에는 화해할 수 밖에 없는 현실 가족의 모습을 유쾌하게 그리고 있다.

연극 필로우맨

일 시 | 8월 23일-24일 금-토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5천원(네이버 예약)
문 의 | 극단 피크닉 010-6607-3313



전 세계가 주목한 브로드웨이 연극으로, 극중 극의 흥미로움과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현대적인 감각의 스틸러극 '필로우맨'.

21세기의 셰익스피어로 불리는 마틴 맥도너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필로우맨'은 가상의 전체주의 국가를 무대로, 그 사회 속에서 억압되고 비틀린 인간들이 얽혀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점차 드러나는 진실 속에서 희생되고 짓밟히며 또한 타인을 짓밟기도 하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드러낸다. 이번 작품에서 관객들은 잔혹동화처럼 오버랩되는 이야기들 속에서 결국 픽션보다도 더욱 끔찍한 진실들과 마주하게 된다.

- 원작/마틴 맥도나 • 연출/박규남
- 출연/김경민, 호민, 강효석, 김재욱, 민유원

뮤지컬 시크릿쥬쥬 별의 보석 '소원을 말해봐!'

일 시 | 8월 31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9월 1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6만원(24개월 이상 관람, 예매시 할인)
문 의 | 우리누리 1577-4868



신비한 마법 세계 속 별의 여신들과 함께 귀여운 별의 보석 '쥬비쥬'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이번 무대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아름다운 음악 선율과 선사인빌을 구현한 동화 같은 무대, 그리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보물 사냥꾼 루시는 대마녀의 계략으로 쥬비쥬를 훔쳐 달아나지만 알 수 없는 힘으로 잃어버리게 된다. 쥬쥬와 신디, 스틸라는 또다시 고양이와 되어버린 테리(타로)와 함께 인간 세상에 흩어진 쥬비쥬를 찾기 시작하고 그러던 중 시크릿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신비의 소년 로사를 만나게 되는데...

H-클래식 피콜로 오페라 페스티벌

일 시 | 7월 19일(금)-8월 9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R석 2만원, S석(2층) 1만원(초중고생 30% 할인)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419-5571~4

해운대문화회관이 수준 높은 오페라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한 '피콜로 오페라 페스티벌'.

7월 26일(금) 영아츠 컴퍼니 '물의 아이'



힘센 장사 오동미와 인어의 사랑을 그린 창작 가족오페라 '물의 아이'.

- 프로듀서/김태영
- 작곡/한대섭
- 작, 연출/장희원

- 소프라노/최예은, 이선아
- 테너/김지훈 • 바리톤/류동휘

8월 2일(금) 프로젝트 오리지날 '피가로의 결혼'

풍자의 미학과 유쾌한 희극적 요소가 결합된 18세기의 대표적인 오페라 부파,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이른바 '보마르세 3부작'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 작



가 보마르세의 희곡은 스페인 세비야를 배경으로 이발사 피가로와 바람동이 알마비바 백작이 펼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 연출/정승화

- 음악코치/최승희
- 피아노/민종호 • 해설/배우 선승일
- 소프라노/이진영, 정혜리, 김아름
- 테너/박호민 • 바리톤/정승화, 한정헌

8월 9일(금) 아트네상스 '그남자 그여자 & 이상한 네일샵'



몬티의 'The Telephone'과 세이무어 바 랍의 'A Game Of Chance'를 각각 원작으로 한 '그남자 그여자', '이상한 네일샵'을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는 무대.

- 연출/김대경 • 지휘/손성준
- 총괄기획/박순기
- 소프라노/김민혜, 박현진, 정혜리
- 메조소프라노/이지영
- 바리톤/강경원 • 베이스/박순기
- 연주/경상필요케스트라 15인조

8월 스페이스움 음악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30 스페이스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스페이스움 557-3369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 공동체와 소통해온 스페이스움의 8월 무대.

2일(제552회) 백선영&미노리마츠다 듀오 리사이틀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뉴욕 매네스 음대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백선영과 그의 대학 동문이자 1966QUARTET 피아니스트로 있는 미노리 마츠다가 함께 선보이는 듀오 리사이틀.

드뷔시, 풀랑크, 그리그 등의 다양한 곡으로 한국 관객을 만나다.

9일(제553회) 탱고의 회상(Reminiscencias de Tango)



작곡가 겸 반도네오니스트 김종완, 피아니스트 이

안나, 바이올리니스트 강소연, 비올리니스트 정하람으로 구성된 반도네온 앙상블 '친친탱고'의 무대. 탱고를 통해 함께했던 추억들을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마련한 이번 무대에서는 누에보 탱고의 창시자인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명곡들과 더불어 친친탱고의 자작곡들로 그들만의 독특한 무대를 선사한다.

16일(제554회) 김영 교수와 함께하는 렉처콘서트 클래식과 '그들 속의 애국심' 찾기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아시아센터 객원교수이자 아이네양상블 음악감독으로 있는 김영 교수와 함께하는 렉처콘서트.

아이네양상블은 1997년 창단 후 서양악기와 국악기의 합동공연을 통해 한국의 예술과 문화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지구 기후환경 보호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주단체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번 무대에서는 브람스, 쇼팽, 생상스, 시벨리우스, 스트라빈스키, 피아졸라 등 민족주의 음악과 음악을 새로운 세계로 이끈 작곡가들을 소개한다.

- 연주/아이네양상블, 반도네온 김종완, 피아노 김정연, 카혼(타악기) 강병곤, 플루트 김영

을속도문화회관 청년예술공간

일 시 | 8월 8일(목), 29일(목) 오후 7:30
을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속도문화회관 220-5811~4



지역의 청년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을속도문화회관 청년예술공간.

8일(제11회) Sing!(Sing) 그려운 날, Sing Along!!

영상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소품을 활용한 '오페라 아리아 메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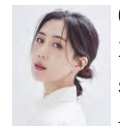
리'를 비롯하여 스토리텔링이 있는 '문어의 꿈, 후라이의 꿈', 애니메이션 OST, 뮤지컬 넘버, K-POP, 등 다양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29일(제12회) 모리모리

국악과 재즈를 접목하여 기존의 음악과는 다른 국악 재즈를 선사하는 음악그룹 결의 무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곡을 국악의 선율과 장단을 재즈 요소에 접목시켜 대중적이면서도 새로운 곡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간다.

23일(제555회) Art teller 정인지와 함께하는 'Your summer'



여름에 관련된 건축, 미술, 영화 이야기와 함께 음악을 감상하는 'Your summer'.

부산가톨릭대학교 외래교수로 있으며 Art Teller로 활동 중인 정인지가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관객들을 이끈다.

30일(제556회) 허미경 교수의 인문과 예술 교양 렉처시리즈 '노래하는 괴테'

인제대학교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허미경의 렉처 콘서트.

'괴테'를 테마로 하는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상세한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 소프라노/허미경, 양효정, 김보민, 당치아오링, 배유미, 이소민, 정예진
- 메조소프라노/우요나
- 테너/김철수, 우첸페이
- 피아노/이소영, 박필은, 어숙진
- 첼로/강수정
- 합창/호루루, 송찬희, 이서현, 서혜나, 류소강

게네랄파우제 8월 공연

일 시 | 8월 3일(토) 오후 7:00, 9일(금), 16일(금), 29일(목) 오후 8:00

게네랄파우제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게네랄파우제 070-4177-3927

클래식부터 재즈 및 크로스오버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게네랄파우제 8월 무대.

3일(토) 오후 7:00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사는 음악가(부제: 사계)



학구적인 열정이 갈아 모인 동문들로 구성된 엔 트리오(N trio)의 무대.

엔 트리오는 2011년 결성된 후 매년 다양한 기획연주를

통해 관객과 소통해왔다.

팀명인 'N'은 'Number'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다양한 음악과 활동을 보여주고 싶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바이올린 소나타 바장조 작품 24 '봄' 1악장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8번 작품 13 '비창' 2악장
쇼팽/에튀드 작품 10 제3번 '슬픔'

차이콥스키/‘사계’ 발췌
피아졸라/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등
• 피아노/강민희 • 바이올린/김소연
• 첼로/최주원

9일(금) 오후 8:00 Dance!



클래식의 정수를 알려주기 위해 고집스럽게 클래식 작품만을 연구하고 연주해온 앙상블 참여 무대.

그동안 국내 초연작을 비롯 새로운 창작곡을 발굴, 소개해온 앙상블 참여 이번 무대에서 고든 제이콥, 필립 고베르, 그리그, 생상스의 곡을 들려준다.

• 플루트/박은주 • 오보에/문동원
• 클라리넷/조가진 • 피아노/강민희
• 해설/박민음

16일(금) 오후 8:00 재즈스토리콘서트 ‘Shall we’



재즈뮤지션들이 최애하는 각자의 재즈 아티스트를 공유, 그들과 함께 공연하는 콘셉트로 기획한 허쉬밴드의 재즈스토리콘서트 ‘Shall we’.

재미나는 스토리텔링과 음악공연으로 이뤄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관객들의 사연이 더해져 특별한 음악여정이 펼쳐진다.

• 보컬/MinZu, 이동현
• 피아노/오느린 • 베이스/박주민
• 드럼, 리더/허여정
• 스토리텔러, 아코디나/김선영

29일(목) 오후 8:00 월간민주신 ‘바이올리니스트 조혜운의 이야기’



게네랄파우제와 재즈피아니스트 민주신이 함께 기획한 ‘월간민주신’.

민주신의 진행으로 연주자를 초청, 음악인들의 예술활동과 삶에 대한 이야기, 다양한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며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로, 8월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조혜운이 관객과 만난다.

프로그램

Summer time, On the sunny side of street, Georgia on my mind, St. Louis blues, Our spanish love song, All the things you are, Spain

• 피아노/민주신 • 바이올린/조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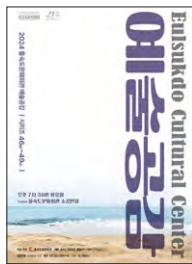
울속도문화회관 예술공감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30(20일 공연 없음)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6월(제47회) 따뜻한 바람, 차가운 바람, 새로운 바람
관공악기만의 웅장함을 감상할 수 있는 후 브라스 콰이어의 무대.

13일(제48회) 모멘트의 음악여행

소프라노 이지혜, 소프라노 정원진, 바리톤 안성진, 김영수 등 젊은 성악가들의 매력 넘치는 목소리로 펼쳐지는 ‘모멘트의 음악여행’.

27일(제49회) 미운 아기 오리의 비상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아기 오리가 다름으로 인해 가족과 주변 인물들에게 외면당하지만 가족을 떠나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인물,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며 변화되는 모습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풀어나가는 특별한 음악회.

제33회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정기연주회 Puccini & Art pop

일 시 | 8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010-8009-2509



부산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악가로 구성된 아미티에 성악연구회의 33번째 정기연주회.

푸치니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1부에서는 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 ‘나비부인’, ‘투란도트’의 유명 아리아를 들려주며, 관객과 함께하는 2부에서는 아트팝송을 들려준다.

• 소프라노/강수진, 박나래, 박민영, 박소영, 양근화, 양성희, 이수진, 이연진
• 테너/강도호, 김성, 서훈하, 이산범
• 바리톤/김기환, 이태영 • 베이스바리톤/양종근
• 피아노/이현주, 정고은 • 바이올린/김성빈
• 비올라/양승호 • 첼로/송예슬
• 반도네논/김종완 • 해설/이창원

울속도문화회관 8월 굿모닝콘서트 현과 재즈의 로망스

일 시 | 8월 16일 금요일 오전 11: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5천원

(커피 포함,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자연 속 정원에 자리잡은 울속도문화회관에서 모닝커피와 함께 공연을 즐기는 굿모닝콘서트 8월 무대.

퓨전밴드 크레센도의 연주로 열리는 이번 굿모닝 콘서트는 한여름 오전에 어울리는 클래식과 재즈의 콜라보 무대로, 누구든지 알고 재미있게 흥얼거릴 수 있는 클래식과 재즈, 팝, 가요 등을 들려준다.

더뉴앙상블 제8회 정기연주회

일 시 | 8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예매는 인터파크 티켓)
문 의 | 더뉴앙상블 070-8095-9426



부산광역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지역 내 오케스트라 및 앙상블 공연 및 예술교육 등 여러 장르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뉴앙상블 정기연주회.

더뉴앙상블은 매년 6회 이상 정기연주회를 통해 수준 높은 연주로 음악의 저변 확대와 문화예술 발전에 힘쓰고 있다. 코원필요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있는 최현이가 지휘하고 클라리넷리스트 김상윤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칼 젠킨스, 드보르작, 모차르트의 곡을 들려준다. 김상윤은 2015 프라하의 봄 국제콩쿠르, 2012 랑슬로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세인트 폴체임버오케스트라 수석 및 미네소타대 교수로 있다.

- 지휘/최현이
- 클라리넷/김상윤

우리의 음악 이야기, 세상 속에 울려 퍼지다

일 시 | 8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앙상블We 010-4254-5586



부산과 경남 지역 출신의 발달장애 연주자들로 구성된 앙상블We의 무대.

지난 2019년 4월 결성된 후 무지카비바 앙상블 박경희 음악감독의 지도로 꾸준히 실력을 쌓아온 앙상블WE는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다양한 무대에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무대는 2024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열리는 무대로, 발달장애를 가진 연주자들이 만들어내는 음악과 이야기를 통해 따뜻한 공감과 감동을 전한다.

- 앙상블WE/이희담(바이올린), 오인제(바이올린), 최우진(바이올린), 진시원(첼로)

제2회 다원앙상블 정기연주회

일 시 | 8월 17일 토요일 오후 3:30
장소 |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문 의 | 다원앙상블 010-2086-1779



초중고 대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 첼로 앙상블 팀인 다원앙상블의 무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무대로, 클래식 명곡에서부터 영화 및 드라마 OST 등 우리 귀에 친숙한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냉정과 열정 사이, MY Home(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OST), 캐리비안의 해적 OST, 하이든 피아넬 4악장, 비발디 콘체르토 그로서 자품 3 제11
- 출연/이정은(동아대 1학년), 김도윤(장안고 2학년), 김사랑(가야고 2학년), 김재원(개금고 2학년), 안성준(동인고 1학년), 김나영(초읍중 3학년), 이지후(서면중 1학년), 김아진(부암초 6학년), 전주안(개원초 5학년), 최성연(전포초 4학년)

을숙도문화회관 K-POP 시리즈 공연 굿바이 썸머 콘서트

일 시 | 8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을숙도문화회관이 7월부터 선보이고 있는 '을숙도 K-POP공연' 시리즈 8월 무대.

이번 '굿바이 썸머 콘서트'에서는 가수 테이를 초청, 오케스트라와 콜라보 무대를 선사한다. 방송과 콘서트를 통해 여전히 두터운 팬층을 갖고 있는 가수 테이는 이번 무대에서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사랑은 하나다' 등 그의 히트곡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이밖에도 소프라노 박지은, 테너 김창동 등 부산 최고의 연주력을 자랑하는 연주자들이 출연, 가곡과 아리아를 들려주며, 건반과 태평소의 절묘한 콜라보로 이루어지는 '고구려의 혼'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후 브라스 콰이어 제13회 정기연주회 Amore

일 시 | 8월 18일 일요일 오후 6:00
장소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후 브라스 콰이어 010-8733-7438



진지한 음악정신을 바탕으로 부산, 경남의 관악주자 6명으로 창단한 후 브라스 콰이어 정기연주회. 지난 2011년 창단한 브라스 콰이어는 현재 26명의 단원이 5중주부터 26중주까지 다양한 편성과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며 금관앙상블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 대표/김영민
- 음악감독, 지휘/김기울
- 게스트/이리나(바이올린), 이필림(작곡), 심예준(튜바)
- 해설/김윤선

고현아 창작 대금 독주회 바람의 형태

일 시 | 8월 24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고현아 010-8611-2574



음악에 대한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창작 작업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추구하고 있는 대금 연주자 고현아의 첫 번째 창작 독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관악기인 대금의 '바람'이라는 특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장르와 템포를 가진 곡을 통해 대금의 다채로운 음색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 경풍년, 염불풍류, 대금과 피아노를 위한 도시회상(이고운 작곡), 버터플라이(고현아 작곡)
- 대금/고현아
 - 타악/안유진
 - 해금/김민경
 - 피아노/조한됨
 - 사회/김다순

오페라 하이라이트 페스타

일 시 | 8월 23일 **금요일 오전 11:00, 24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만 5세 이상 관람)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한국전래동화가 된 한국어 오페라 흥퍼딩크 '헨젤과 그레텔_해와 달이 될 뻔한 오누이', 컴퓨터 속 게임으로 펼쳐지는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_게임 속으로', 목격자 고백으로 들어보는 셰익스피어의 명작 구노 '로미오와 줄리엣_슬픈 사랑이야기' 등 3편의 명작 오페라가 새로운 연극적 각색과 친절한 자막으로 오페라를 처음 경험하는 모든 세대의 관객들에게 쉽게 다가간다.

23일(금) 오전 11:00 헨젤과 그레텔_해와 달이 될 뻔한 오누이

한국전래동화를 각색한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 원작 오페라에 등장하는 요정들이 신령스러운 할머니로 등장,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며 극의 흐름을 이

끌고, 어린이 관객을 위해 장면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소프라노/이채영, 김리운, 김현진, 이유빈, 이지은
 • 테너/박의준 • 바리톤/김경천

24일(토) 오전 11:00 마술피리_게임 속으로
 원작 오페라의 무거운 소재를 우리 시대 관객들이 더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오페라 장면 진행을 게임 플레이로 재구성, 컴퓨터 속 게임 세계를 넘나드는 중학생들의 흥미진진한 모험 속으로 관객을 이끈다.

• 소프라노/박현아, 박준원, 박채원, 이유빈, 이우진, 김지민, 박주영, 이채영, 김리운
 • 메조소프라노/현서진, 남수지
 • 테너/이진욱, 이성훈
 • 바리톤/김경천, 조준석, 임하린
 • 베이스/나규보

24일(토) 오후 5:00 로미오와 줄리엣_슬픈 사랑
 줄리엣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봤던 유모의 회상과 통탄을 따라가며 그들의 슬픈 사랑을 노래하는 '로미오와 줄리엣_슬픈 사랑'.

• 소프라노/김영은 • 테너/김효종, 박의준
 • 바리톤/임하린 • 베이스/박의현, 나규보

지휘자 정병휘와 함께하는 해설음악회 인플루언서

일 시 | 8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부산 출신의 지휘자 정병휘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악원 출신의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초청으로 마련되는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 '인플루언서(Influencer)'.

이번 무대에서는 2021 독일 본 베토벤 국제 콩쿠르 우승 및 3개 특별상 수상, 2018 인터내셔널 저먼 피아노 어워드 우승, 2016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 2016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우승 등 화려한 입상경력을 자랑하는 피아니스트 서형민이 협연한다.

2010년 음악감독 이일세를 중심으로 창단된 앙상블 코스모폴리탄은 바로크에서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과 함께하는 옥섬 하모닉 오케스트라 여름 나눔 음악회

일 시 | 8월 24일 **토요일 오후 3: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예술기획 010-4909-7444



동래초등학교 재학생 및 동문들로 구성된 옥섬 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여름 나눔 음악회.

지난 2005년 창단한 옥섬 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음악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번 음악회의 수익금 역시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에 기부된다.

• 지휘/박진홍
 • 피아노/진형우 • 플루트/홍수아
 • 바이올린/우리는, 장지유, 장지수, 김윤서, 김현수
 • 트리오/바이올린 박시윤, 첼로 박지유, 클라리넷 박주형

제주해녀의 숨결에 실린 푸르고 깊은 노래 숨·빛·소리

일 시 | 8월 25일 **일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무료(사전예약 필수, 선착순 입장)
 문 의 | 제주무용예술원 예담 010-3639-8546, 010-7160-0863



투박한 해녀들의 애환과 삶을 엿볼 수 있는 '숨·빛·소리'.

제주도 고산어촌계 해녀들로 구성된 차귀도 해녀소리보존회는 2016년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2018년 4월 설립된 후 매년 국내외 공연을 통해 제주해녀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제주도 지정문화재 제1호인 해녀 노래 '이어도사나'를 기반으로 제주의 대표적인 유희요인 '오돌또기', '노영나영' 등을 무대화하고 작창 판소리, 국악가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 총감독/고춘식 • 공동연출/고춘식, 전혁준

어린이 오페라 오페라야! 놀자!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일 시 | 8월 24일 **토요일 오후 2: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만 4세 이상 관람,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오페라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울속도문화회관 '오페라야! 놀자!' 네 번째 무대.

'오페라야! 놀자!'는 지난해 6차례 공연을 통해 연속 매진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은 시리즈로, 특히 부산시 캐릭터 부기가 오페라에 출연하며 어린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번 8월 무대에서는 19세기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의 전성시대를 여는 로시니의 대표작 '세비야의 이발사'를 만날 수 있다.

• 기획, 총괄/윤보영 • 음악감독/방은승
 • 소프라노/박예은 • 테너/김성
 • 플루트/황미리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아이들과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회

일 시 | 8월 25일 일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전석 3만원(만 5세 이상 관람)
문 의 | 첼리스트의 서재 010-5029-5807



송정에 자리한 문화공간 ‘첼리스트의 서재’가 매월 다양한 테마와 더불어 지브리 음악을 소개해온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8월 무대.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한 클래식 무대로 ‘어연히’(어디서든 연주가 가능한 히든 플레이스) 대표인 첼리스트 이명호와 피아니스트 양상블 단장이자 ‘첼리스트의 서재’ 대표인 피아니스트 박민희, ‘어연히’ 부대표 플루티스트 신혜원, 해운대 인기 버스커 ‘꿈꾸는 요리사’로 유명한 아코디언리스트 심성훈,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첼로 단원 이석민이 관객과 만난다.

2024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 내한공연
지브리, 재즈를 만나다

일 시 | 8월 28일 수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 장 료 | VIP석 7만7천원, R석 6만6천원
문 의 | 지누락엔터테인먼트 070-8680-8477



한국인이 사랑하는 재즈 트리오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 부산공연.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는 타테이시 카즈미(피아노), 사토 시노부(콘트라베이스), 스즈키 마오(드럼)로 구성된 일본의 재즈 트리오로, 지브리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재즈로 편곡 연주한 2010년 데뷔 앨범 ‘Ghibli Meets Jazz~ Beautiful Songs~’와 2011년 발매한 지브리 애니메이션 음악 시리즈 2탄 ‘Ghibli Meets Jazz~ Memorable Songs~’가 국내외에서 크게 히트하며 주목 받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브리 애니메이션 명곡을 깊이 있는 재즈 연주로 들려준다.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클로드를 위한 탱고

일 시 | 8월 27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1만5천원(커피 포함)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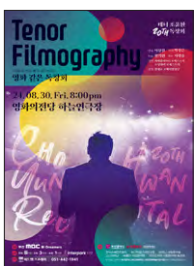
한국 반도네온의 대명사 고상지와 바이올리니스트 윤종수, 피아니스트 조영훈의 무대로 꾸며지는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가르델, 갈리아노, 피아졸라의 탱고 명곡을 비롯하여 히사시 조의 영화음악 등 다채로운 곡으로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준다.

프로그램

- 가르델/당신이 나를 사랑한 날
갈리아노/클로드를 위한 탱고
고상지/마지막 만남
피아졸라/망각 등 수곡
• 해설/조희창(음악평론가) • 반도네오/고상지
• 바이올린/윤종수 • 피아노/조영훈

테너 조윤환 제20회 독창회
테너 필모그래피

일 시 | 8월 30일 금요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영화의전당에서 열리는 영화같은 독창회 ‘테너 조윤환 제20회 독창회’. 깨끗하고 담백한 미성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조윤환은 현재 부산칼빈신학교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박성은 지휘자가 지휘하는 미래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로시니의 ‘세빌리아 이발사’ 서곡을 시작으로 오페라 아리아와 한국가곡 및 이태리가곡, 영화음악 주제곡을 들려준다.

이번 음악회의 수익금은 강서구 아동복지시설인 소양무지개동산(구, 소양보육원)의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2024 영화의전당 11시 음악회 8월
감독의 작품세계를 채색하다
PART I : 이명세

일 시 | 8월 28일 수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한국영화음악을 이끌어가고 있는 영화음악감독을 중심으로 매월 색다른 주제로 펼쳐지는 영화의전당 11시 영화음악콘서트.

8월은 영화음악가 조성우와 영화감독이 만

나는 ‘감독의 작품세계를 채색하다’ 첫 번째 시간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영화감독 이명세가 함께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명세 감독과 조성우 음악가의 우정과 철학,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며, 조성우가 음악감독을 맡은 이명세의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형사: Dualist’, ‘M’의 테마곡을 들려준다.

- 연주/코리안 필름 체임버 오케스트라

새로운 발자취, 누에보 트랙

일 시 | 8월 31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퓨전앙상블 010-8325-3588



클래식음악에 한국적인 요소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음악을 추구해온 퓨전앙상

블의 무대.

2014년 창단된 후 올해로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퓨전앙상블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새로운 미래에 대한 뜻을 품고 더욱 세련되고 진보적인 음악세계를 구현하고자 젊고 참신한 실력있는 연주자들과 함께한다.

- 바이올린/김유리 • 첼로/이동영
- 피아노/서혜리 • 클라리넷/백동훈
- 소프라노/구민영 • 해금/최유리
- 피리, 생황/권미정 • 장구/이효빈
- 해설 및 진행/김순선
- 편곡/정희영 • 작곡/이기영
- 바이올린 현연/백재진(동의대학교 교수)

연극 **편의점 진상들**

일 시 | 3월 14일(목)-8월 4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 오후 2:30, 5:00 (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입 장 료 | 전석 4만원
문 의 | ㈜조은아트플러스 1588-2757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겪었을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을 극 중 주인공이 대신 속 시원하게 맞아치며 웃음과 공감을 주는 '편의점 진상들'. 주인공 상식은 번번히 취업에 실패하여 가족들 눈치보기 바쁜 취업 준비생이다. 담뱃값이라도 별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편의점 알바, 바쁘고 정신 없는 편의점에서 고군분투하던 중 상식의 눈에 들어온 로또 1등 중이. 로또 인생 한방을 꿈꾸는 상식 앞에 멘탈 탈탈 털리게 만드는 진상들이 나타나며 K손놈과 맞선 로또 사수 대작전이 펼쳐지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격공할 수 있는 인생 실전 이야기가 유쾌하게 펼쳐진다.

뮤직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일 시 | 5월 1일(수)-Open run 수-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5:00, 일요일 오후 2:00(월-화요일 공연없음)
입 장 료 | 전석 6만원
문 의 | 극단 지우 664-8400



세대불문, 남녀노소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휴먼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지난해 4월 서울에서 초연된 후 책을 본 관객 뿐 아니라 연극을 본 관객이 책을 구매하는 역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스테디셀러극으로, 이번에 섀텀 KNN타워에 위치한 KNN시어터에서 장기공연에 들어간다. 노숙인이었던 주인공 독고가 올웨이즈 편의점 사장 염여사를 만나면서 조금씩 변화가는 과정을 그린 이번 작품은 프로듀서 황기현, 연출 홍현우, 음악감독 김은지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탄생한 웰메이드 뮤지컬드라마로, 감각적인 선율과 극의 정서를 반영한 가사로 따뜻한 응원과 위로를 전한다.

연극 **새빨간 거짓말**

일 시 | 6월 14일(금)-9월 8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입 장 료 | 전석 3만5천원(만 13세 이상 관람)
문 의 | (주)플레이더 부산 1600-0316



오감을 자극하는 스릴러 연극 '새빨간 거짓말'. 완벽주의자로 직업, 환경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 어느날 그가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면서 그녀의 주변 사람들 모두가 용의선상에 오른다. 유리에게 빼앗긴 게 많은 후배 마연정, 그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남자친구 김주원, 그런 그들의 주위를 맴돌며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정체불명의 그, 모두가 그녀에게 복수할 이유가 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사건은 미궁 속에 빠지고 마는데... 과연 범인은 누구이며 왜 그랬을까? 연극 '새빨간 거짓말'은 탄탄한 스토리와 예측 불가능한 전개, 설 틈 없이 조여오는 긴장감으로 차원이 다른 공포를 선사한다.

연극 **시크릿 하우스**

일 시 | 7월 18일(목)-9월 8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입 장 료 | 전석 4만원(15세 이상 관람)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미스터리 하우스 호러 '시크릿 하우스'. 사업실패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집으로 이사온 남편과 부인, 그리고 그들의 사랑스러운 딸 하선. 행복할 것만 같던 시골집에서의 생활은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데... 과연 이 가족은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특히 익숙한 배경과는 다른 신선한 공포감은 물론 코믹과 감동까지 색다른 공포극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 연출/한성운

2024 극단가마골 기획전 2
 공감극장 **할 말 있습니다**

일 시 | 7월 27일(토)~8월 25일(일) 주말 오후 3시(평일·8월 10일-11일 공연없음)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가마골소극장 723-0568



정해진 텍스트 없이 관객의 이야기를 즉흥으로 무대에서 상연하는 연극 '할 말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로 만드는 즉흥무대'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잊고 살았던 삶의 가치에 대해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로, '플레이백 시어터' 형식을 통해 관객들의 이야기를 펼쳐내고 그것을 다시 이야기의 주인공들에게 돌려준다. '플레이백 시어터(Playback Theatre)'는 기존의 대본 중심, 배우 중심의 연극에서 탈피하여 대본 없이 관객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관객과 배우가 함께 만들어가는 즉흥극을 말한다.

- 연출/이동준

뮤지컬 **앨리스 인 완다랜드: 완전 다른 세상 이야기**

일 시 | 8월 3일(토)-4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R석 6만6천원, S석 4만4천원(36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메이크쇼 1566-6818



전 세계를 매료시킨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무대 위에 되살린 이번 작품은 원작을 새롭게 해석한 신선한 전개로 상상력을 자극하며, '이상한 나라'보다 더 이상한, 완전 다른 세상 '완다랜드'로 관객들을 초대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10억원 제작비의 초고퀄리티 홀로그램 애니메이션이 선사하는 신비로운 영상미와 독일 Radio Orchestra의 환상적인 하모니, 그리고 발레, 아크로바틱, 탭댄스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화려한 퍼포먼스로 당신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기타공연장

니키 '매직페이커'

일 시 | 8월 10일 토요일 오후 3:00, 7:30,
11일 일요일 오후 2:00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 장 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만 5세이상 관람)
문 의 | ㈜더화랑이엔티 1800-6567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억 6천만 뷰를 돌파한 대한민국 No. 1 매직 크리에이터 니키의 '매직페이커'. 니키의 최고의 히트작이라 할 수 있는 '매직페이커'는 유튜브에서 선보인 일반인과 마술사가 마술로 대결하는 콘텐츠로, 다양한 직업군의 전문가들과 마술 대결을 라이브로 구현하여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면서 나오는 편마다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 마술이라는 장르로 온라인 공간에서 늘 새로운 시도를 통해 마술사가 아닌 '매직페이커'라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온 니키의 이번 무대는 영상을 통해 만나온 '매직페이커'를 실제로 직관할 수 있는 무대로, 두 눈을 믿기 힘들만큼 비주얼한 마술들이 펼쳐진다.

가족뮤지컬 **인어공주**

일 시 | 8월 24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북구문화예술회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예매시 2만5천원)
문 의 | 탑이엔티 1800-7672, 010-5933-0808



바닷속 같은 아름다운 무대로 관객들을 초대하는 극단 해미소의 가족뮤지컬 '인어공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최고의 동화, 안데르센의 '인어공주'를 각색한 이번 무대는 어린이들에게는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부모에게는 잃어버린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멋진 추억을 선사한다. 왕자를 향한 인어공주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번 무대는 특히 바닷속 신비로움과 극적 긴장감을 더해줄 화려한 조명과 아름다운 음악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가족뮤지컬 **뽀로로와 친구들의 드림 콘서트 '잃어버린 꿈을 찾아서'**

일 시 | 8월 15일(목), 17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오후 4:30, 16일(금),
18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백스코 오디오리움
입 장 료 | 전석 5만원(예매시 할인)
문 의 | ㈜엔투게더 070-4108-9999



어린이 애니메이션의 한 획을 그은 '뽀로로' 뽀로로와 친구들이 펼치는 신나는 가족뮤지컬. 전 세계 160여 개국 수출, 유튜브 키즈 콘텐츠 분야 조회수 세계 1위 등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뽀로로' 시리즈는 가족뮤지컬로도 제작되어 지난 20년간 총 300만 명이 관람하며 국내 최고의 가족뮤지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영유아부터 익숙한 뽀로로 히트곡을 같이 감상할 수 있는 싱어송 타임과 객석을 종횡무진 누비는 출연진과의 기념사진 촬영 등 객석과의 소통을 통해 어린이 관객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간다.

2024 라이브가족뮤지컬 **피터팬**

일 시 | 9월 1일 일요일 오후 1:00, 3:00,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3만5천원(24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조이컬처 070-4045-2302



로빈 윌리엄스, 더스틴 호프만 주연의 영화 '후크'와 휴 잭맨의 영화 '팬'을 모티브로 제작한 가족뮤지컬 '피터팬'.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가족극으로, '미녀와 야수', '고양이캣', '라퐁젤', '인어공주', '프린세스 공주' 등 다수 작품으로 인정받은 극단 이후의 뛰어난 연출력과 구성, 그리고 실력과 배우들의 생생한 라이브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영원의 나라 내버랜드, 그곳에는 자신의 영원한 젊음을 위해 요정가루를 수집하는 악당 검은수염이 지배하고 있다. 그에 맞서 싸우는 후크와 피터, 그들은 과연 검은수염을 물리치고 내버랜드를 구할 수 있을까?

뮤지컬 **'영웅' 15주년 기념공연**

일 시 | 8월 23일(금)-9월 1일(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6:30,
일요일 오후 2:00(월-목요일 공연없음)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 장 료 | VIP석 16만원, R석 14만원, S석 10만원
(만 8세 이상 관람)
문 의 | ㈜컬처박스 02-745-1555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1909년 하얼빈 의거를 다룬 뮤지컬 '영웅'의 15주년 기념공연. 특히 '영웅'은 실존인물과 가상의 인물을 적절하게 활용한 입체적인 스토리, 압도적인 넘버와 배우들의 가창력, 화려한 안무 등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난해 '명성황후'에 이어 국내 창작뮤지컬로서는 두 번째로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초연부터 안중근 의사 역을 맡아 15년을 함께 해온 배우 정성화와 양준모, 민우혁이 안중근 역을 맡아 더 깊어진 여운과 감동을 전한다.

가족뮤지컬 **정글북**

일 시 | 9월 1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4천8백원(예매시 적용)
문 의 | (주)희망극단 070-7311-3149



모글리와 함께 떠나는 정글 속 모험 이야기, 가족뮤지컬 '정글북'. 영국 작가 키플링의 동명 소설에 등장하는 정글북은 정글에서 성장한 늑대 소년 모글리가 펼치는 환상적인 모험을 중심으로, 마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대변하는 듯한 다양한 동물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정글북'은 그동안 영화와 애니메이션, 뮤지컬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현장감 넘치는 라이브 뮤직과 화려한 춤, 마치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의상과 메이크업, 그리고 다채로운 무대 퍼포먼스까지 판타스틱한 연출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연극 **러브레터**

일 시 | 9월 7일 토요일 오후 3:00, 7:00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 장 료 | R석 7만7천원, S석 5만5천원
 (14세 이상 관람)
문 의 | ㈜전공이엔티 1522-2061



편지를 매개로 50년에 걸쳐 서로의 인생을 나눈 동화 같은 로맨스극 '러브레터'.

미국 극작계의 거장이라 불리는 'A. R. 거니'의 작품을 원작으로, 1988년 초연 이후 톰 행크스, 멜 깁슨, 시고니 위버, 브룩 실즈 등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당대 배우들이 출연했고 현재까지 30개 언어로 공연되고 있는 스테디셀러 작품이다. 국내에서는 1995년 초연됐으며, 배우 장현성, 배종옥, 박정자 등이 거쳐 갔다.

이번 무대에서는 무대와 매체를 넘나들며 밀도 있는 연기를 선보이는 배우 정보석, 박혁권, 하희라, 유선이 그 어느 무대에서도 볼 수 없는 가슴 설레는 로맨스를 선사한다.

뮤지컬 **수박수영장**

일 시 | 9월 7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8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 장 료 |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24개월 이상 관람, 예매시 할인)
문 의 | ㈜더화랑이엔티 1800-6567



무더위를 즐기는 기발한 상상력 뮤지컬 '수박수영장'.

가장 주목받은 그림책 작가로 꼽히는 안병달의 스테디셀러 원작 그림책을 기발한 상상력으로 구현한 '수박수영장'은 바쁜 부모님을 도우려다 의도치 않게 사고뭉치가 된 주인공 '진희'가 여름방학을 맞아 외가에 놀러가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할아버지와 소통이 안 되어 속상해 하던 '진희'는 길을 잃은 수박 씨앗을 만나 '수박수영장'에 도착하고, 이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느끼며 스스로를 빛나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세대를 아우르는 따뜻한 이야기로 웃음과 감동을 준다.

와이즈발레단 **헨젤과 그레텔**

일 시 | 8월 17일 토요일 오후 2: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48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국내 최초, 전막발레로 만나는 세계명작동화 '헨젤과 그레텔'.

그림책계의 동화 '헨젤과 그레텔'은 그동안 영화, 드라마, 오페라 등 다양한 버전으로 제작되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헨젤과 그레텔'은 국내외 여러 발레단을 거처 다양한 경험을 쌓은 김세연과 와이즈발레단이 오랜 시간 함께 준비한 작품으로, '헨젤과 그레텔'을 소재로 한 발레로서는 국내 처음이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공연의 안무를 맡은 김세연은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를 거쳐 스페인국립무용단 최고무용수 자리에까지 오른 국보급 발레리나로, 2017년부터 안무가로 활동해오고 있다.

2024 영남춤축제 **춤, 보고싶다**

일 시 | 7월 13일(토)-8월 10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입 장 료 | S석 2만원, A석 1만원
 (예지당은 전석 1만원, 야외마당은 무료)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111



예술인들의 열정과 마음으로 빛어낸 2024 영남춤축제 '춤, 보고싶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함께 소통하는 무대로, 전통춤과 창작춤이 어우러지는 한바탕 춤판이 펼쳐진다.

1일(목) 오후 7:30 예지당

한국전통춤판 4

공모를 통해 선정된 30인의 춤꾼들이 펼치는 '한국전통춤판' 네번째 무대로 유선홍(승무), 김한샘(태평무), 김진우(민살풀이춤), 정지윤(달구벌 입춤), 박정화(논개별곡), 조도근(우도설장구춤)의 무대가 펼쳐진다.

- 사회/윤중강(평론가)

- 음악감독/유인상(전통음악그룹 판 예술감독)

3일(토) 오후 5:00 예지당

춤 워크숍 '영남무악'

영남의 무악(舞樂)을 찾아 판을 열고, 옛춤을 잇고, 새 춤을 짓는 무대로, 영남을 통틀어 유일하게 삼현육각이 남은 통영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삼현육각을 잇고 있는 남해안별신굿 보유자 정영만과 함께 영남무악의 세계를 펼쳐보인다.

3일(토), 10일(토) 오후 3:00 야외마당

버스킹 '국악로'

축제기간 중 매주 토요일 국립부산국악원 야외마당에서 펼쳐지는 젊은 예술인들의 버스킹 무대 '국악로'.

3일에는 2022년 창단 후 각자의 음악적인 색깔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악의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는 모던국악밴드 '탈피'가, 10일에는 차별화된 능력, 새로운 문화, 장르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복합예술문화를 만들어가는 예술단체 '백의'가 관객과 만난다.

6일(화) 오후 7:30 예지당

춤패 배김새 초청 '영남춤진'

부산 최초 한국 춤 전공자들로 창단된 춤패 배김새 초청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그동안 정신대, 원폭, 매춘, 환경오염, 낙태, 세월호 등 동시대의 아픔을 대변하고 사회적 부조리를 고발하며 우리 시대와 함께해온 춤패 배김새만의 대표작품을 선보인다.

8일(목) 오후 7:30 예지당

한국전통춤판 5

30인의 춤꾼들이 펼치는 '한국전통춤판' 마지막 무대로, 춤꾼 위송이(무산향), 남선주(산조춤), 김지윤(버구춤), 최정윤(매향무), 김수현(도살풀이춤), 강은영(진도북춤)의 무대가 펼쳐진다.

10일(토) 오후 5:00 연악당

영·호남 예술단체 합동 폐막공연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과 국립부산국악원이 함께 펼치는 2024 영남춤축제 폐막공연.

올해 3월 선보인 국립부산국악원 제17회 정기공연 '학(鶴)',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무용단의 2022년 제31회 정기공연 '진경(進慶)' 중 일부를 선보인다.

프로그램

국립부산국악원 '학(鶴)'(예술감독·안무/복미경)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예술감독·안무/이혜경, 대본·연출/조주현)

기타공연장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4 공연예술 유통 선정작 **2024 가족발레 '거인의 정원'**

일 시 | 8월 17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일반 2만원, 어린이·초·중·고생 1만4천원 (36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교육성과 예술성을 부각 시킨 국내 최초, 최장기 가족발레 '거인의 정원'. 영미문학의 대표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의 명작화를 원작으로 한 '거인의 정원'은 부산의 대표적 민간발레단인

김옥련발레단이 지난 2014년 첫선을 보인 후 매년 수정, 보완으로 완성도와 만족도를 높여가며 10년째 공연 중인 발레단의 대표적인 레퍼토리이다. 발레뿐만 아니라 극적 효과를 위해 배우가 출연하여 몸짓과 대사를 사용하고, 타 장르와의 융합과 협업으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사한다. 김옥련발레단은 지난 1995년 창단된 후 창작발레 활성화와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 오고 있다.

해운대문화회관 8월 문화가 있는 날
On Stage Concert 아이씨밴드

일 시 | 8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학생·예술인패스 40% 할인)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심종석(카혼, 쟈뎀, 보컬), 황태현(보컬, 기타, 하모니카), 김창하(보컬, 기타, 카जू) 등 3인

조 어쿠스틱 밴드 '아이씨밴드'의 무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상, 사람과 자연의 분기점으로써 음악을 통해 서로의 소통을 위한 음악활동을 펼치고자 2011년 결성된 '아이씨밴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나 자연에 대한 공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만들고 노래하고 있다.

'아이씨밴드'는 그동안 외곽지대나 산동네 골목 등 문화활동에 소외된 이웃을 찾아 골목 dotzari 콘서트를 진행했으며 2020년 5월에는 정규 1집 앨범 '아이씨:봄'을 발매했다.

• 콘서트 가이드/김성민

EUNOIA 크로스오버 콘서트 **in 김광석**

일 시 | 8월 18일 일요일 오후 5:00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 장 료 | R석 12만1천원, S석 11만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문 의 | ㈜더화라이엔티 1800-6567



K-크로스오버 열풍을 일으킨 팬텀싱어 출신의 포르테나 멤버인 오스틴 김, 서영택, 김성현과 크레즐 멤버인 김수인, 이승민으로 구성된 유노이아(Eunoia)의 무대.

'EU(아름다운)'와 'NOIA(마음, 생각)'의 뜻을 담은 유노이아는 이번 무대에서 1,000의 이상 라이브 공연을 통해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노래한 가객 김광석의 곡을 유노이아만의 환상적인 목소리로 들려준다.

팬텀싱어4에서 각각 준우승과 TOP 3를 차지한 포르테나와 크레즐은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서 뛰어난 가창력과 아름다운 화음으로 관객들과 만나왔다.

8월 아카데미 시네바움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9일(금), 23일(금) 오후 2:00, 29일(목) 오후 5:00
시네바움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5일(월) 쇼펜하우어의 인생관
 • 강사/김남호(울산대 철학과 교수)

9일(금), 23일(금) 중국어로 낭독하는 당시 삼백수(참석 예약)

12일(월) 들뢰즈의 비인간(inhuman)
 • 강사/최영송(연구공간 로보트프로이트 대표)

19일(월) 백남준과 미디어 아트
 • 강사/서진석(부산시립미술관 관장)

26일(월) 시네마 언노운: 보이지 않는 영화들 <땀! 어른식 2024>

• 게스트/원진(감독, 무술감독)
 • 진행/김영광(평론가)

29일(목) 하이쿠 산책(참석 예약)

2024 이승철 신곡발매기념 콘서트 **Rock'n All**

일 시 | 8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드림씨어터**
입 장 료 | FS석 18만7천원, VIP석 16만5천원 R석 13만2천원, S석 11만원
문 의 | ㈜전공이엔티 1522-2061

윤판판 투어 콘서트 **따뜻한여름 2024**

일 시 | 8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 장 료 | R석 11만원, S석 9만9천원
문 의 | ㈜창라이프 1566-6551

THE GREATEST:
블후의 명곡 정동하X알리

일 시 | 9월 8일 일요일 오후 2:00 **KBS부산홀**
입 장 료 | R석 12만천원, S석 11만원, A석 9만9천원
문 의 | 라이브스타 1833-4581

세계음악과 노래여행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50
해운대문화회관 3층 회의실
입 장 료 | 3개월 11만원(현장강의 9회, 음악회 1회)
문 의 | 박진영 010-3642-6436(문자문의)



뮤직가이드 박진영과 함께 떠나는 세계음악과 노래여행.

각 나라를 대표하는 클래식 작곡가의 작품을 위주로, 유명 연주자의 연주를 영상과 함께 해설을 진행하고 있다. 영상수업 후에는 각 나라의 민요, 가곡, 뮤지컬, 클래식,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배울 수 있으며, '세.음.여.중.창.단' 활동 또한 가능하다. 8월부터 10월까지 3분기 강좌에서는 푸치니, 베르디, 비발디를 통해 이탈리아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박진영은 부산가톨릭대학교 음악교육원 외래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해운대문화회관 아카데미, 해운대인문학도서관, 연제구 클래식을 만나다 등 다양한 음악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김옥균의 클래식뮤직아카데미 세계의 클래식연주회 해설감상회&작곡가 탄생지 다큐기행

일 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 장 료 10만원(2개월)
문 의 김옥균 010-6367-0149



MBC부산문화방송 'FM 가정 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뮤직아카데미'.

불면증, 우울증 치료에 뛰어난 클래식음악 감상과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 유명 작곡가의 탄생지 기행, 최신 클래식연주회 실황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클래식 입문자도 환영.

프로그램

파리 올림픽 기념 '프랑스 작곡가 작품' 시리즈 2_ 비제 오페라 '카르멘' 전막 감상
K한국가극 배우 부르기_잔향, 첫사랑, 마중, 시간에 기대어 등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5번,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_낭만파음악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슈베르트 미완성교향곡' 외 베토벤 현악4중주 제15번,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음악영화 '카핑 베토벤' 다시보기
뮤지컬영화 감상실 '미스 사이공'

제197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바다' 주제 詩낭송회

일 시 8월 17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문 의 부산알바트로스 시낭송문화회
010-63670-0149

- 출연/이분엽 낭송가, 정태운 시인 외 회원 & 초대시인
- 사회/김병래(전 KBS 아나운서 부장)
- 초청 음악가/가수 정미연, 바리톤 한성권, 하모니카 김진규

8월 오페라바움 해설이 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일 시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00, 토요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전 10:00
오페라바움
입 장 료 전석 2만원
문 의 오페라바움 실장 010-4205-1039



복합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오페라바움이 마련한 8월 클래식 감상회.

매주 월요일에는 후기낭만주의 음악을, 금요일에는 낭만·현대 오페라를, 매주 토·일요일에는 직장인을 위한 특별편성으로,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사전 해설과 감상 후 참여자의 자유 토론, 감상소감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오페라/알반 베르크 '롤루'(2일~3일), 푸치니 '마농레스코'(9일~10일), 푸치니 '일 트리티코'(16일~17일), 바그너 '뉘른베르크의 명가수'(23일~24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팔리아치'(30일~31일) 콘서트(안톤 브루크너 탄생 200주년 기념)/교향곡 제4번(5일, 10일), 교향곡 제7번(12일, 17일), 교향곡 제8번(19일, 24일), 교향곡 제9번(26일, 31일)

안창홍. 드로잉, 오래된 미래展

일 시 7월 8일(월)-10월 11일(금)
부산광역시중구문화원 북병산작은미술관
문 의 부산광역시중구문화원 442-2550



지칠 줄 모르는 상상력과 실현정신의 '안창홍 표 예술'을 직관할 수 있는 '안창홍. 드로잉, 오래된 미래'.

특히 전시가 열리는 대청동은 작가 안창홍이 작품 활동을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인간 이후' 연작, '가족사진' 연작, '위험한 놀이' 연작, '전쟁' 연작 등 청년 시기의 중요한 작품들이 탄생한 곳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드로잉을 중심으로 안창홍의 '오래된 미래'를 깨내기 위한 청년기의 중요 작품들부터 현재 장년기 및 원숙기로 접어든 그의 최근작 '눈먼 자들' 연작, '마스크' 연작, '유령패션' 연작 등 50여 점의 작품과 영상, 사진 자료가 선보인다.

그라운드시스 국내 투어 어노니머스 프로젝트 부산

일 시 5월 1일(수)-9월 22일(일)
KT&G 상상마당부산
입 장 료 균일 1만5천원
문 의 KT&G 상상마당 부산 070-8893-0892

두근두근 도라에몽 IN BUSAN 展

일 시 5월 1일(수)-11월 3일(일)
KT&G 영도 피아크 전시장
입 장 료 일반 1만8천원, 청소년·어린이 1만5천원
문 의 우리공간연구소 1566-1957

영도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한지아 초대 애도의 표상

일 시 7월 15일(월)-8월 10일(토)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갤러리
입 장 료 무료
문 의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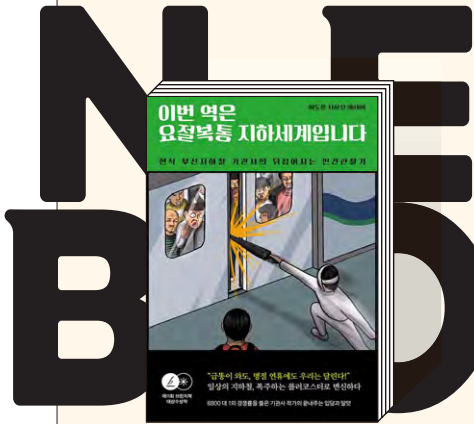
2024년 부산근현대역사관 테마전시 부산의 기억, 도시스케치

일 시 6월 11일(화)-8월 11일(일)
부산근현대역사관 기획전시실
문 의 부산근현대역사관 607-8000



문진우 사진가가 촬영한 부산 사진을 통해 1970~1990년대 도시개발과 성장 속에서 잊힌 부산의 도시 풍경을 회상해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 '부산의 기억, 도시스케치'.

이번 전시는 올해 문진우 작가가 부산근현대역사관에 기증한 사진 1,300여 점 중 미공개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마련된 전시로, 문진우 작가가 지난 30여 년간 공들여 촬영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던 부산의 생생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 이번 전시는 총 3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역은 요절복통
지하세계입니다**

이도훈 지음 / 이야기장수 / 1만7800원

무려 8,800여 편의 응모작이 몰려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2024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에서 당당히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주인공은 현직 부산지하철 2호선의 이도훈 기관사. 평범한 지하철을 롤러코스터로 변신시키는 끝내주는 입담과 말맛의 에세이스트가 탄생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7년을 달려온 내 지하세계의 끝에는 어둠 속의 빛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기관사인 나는 관제사의 지휘 아래 지하철을 몰고, 검수 직원은 지하철을 수리하고, 청소 여사님은 지하철을 청소하며, 역무원은 지하철이 정치하는 역을 지키고, 영양사님과 식당 이모님은 그 모든 지하철 사람들에게 밥을 먹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하세계의 존재 이유가 되어주며 젖빛 지하철에 색을 불어넣어 주는 신기하리만치 다양한 승객들. 그들은 어둠이라는 뒷배를 등에 업은 빛과 같아서, 지하공간에서 본래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자의 말을 읽으면 일상 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부산 지하철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운전실에서 돌연 '급뿔'의 순간을 맞이하고, 쏟아지는 냉난방 민원과 달허가는 지하철 문을 어떻게든 다시 열려는 승객들과 사투를 벌이는 지하철 기관사의 이야기다.



궁궐의 고목나무

박상진 지음 / 놀와 / 2만4800원

창덕궁 창건 당시의 건물은 사라졌지만, 조선 개국 이전부터 살아온 향나무는 오늘도 규장각 봉모당 앞에서 서 있다. '창덕궁 규장각 향나무(천연기념물)'는 오늘날 궁궐에서 가장 오래된 고목으로, 추정 수령 750~760살이다. 현재는 받침대 15개가 괴어져 있다. 규장각 가까이 있는 선원전은 왕실의 제사 공간인데, 향나무는 제향에 쓸 재료가 되어 보호받았고, 덕분에 규장각 향나무가 긴 세월을 버틸 수 있었다. 창경궁 남쪽의 선인문 돌다리와 명정전 행각에는 사도세자가 죽는 비극적인 역사를 가까이 지켜봤을 회화나무 2그루가 자란다. 인간의 수명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오래 사는 나무, 그중에서도 궁궐을 오래 지키고 있는 고목은 어떤 역사를 품고 있을까. 나무 고고학 분야의 권위자 박상진 교수는 <동궐도>와 사진·문헌의 도움을 받아 조선 4대 궁궐에 자리한 주요 고목나무를 소개한다. <동궐도>는 조선 순조 연간에 제작된 대형 궁궐 그림으로, 창덕궁과 창경궁의 건물뿐만 아니라 4천여 그루의 나무까지 채색으로 세밀하게 그려진 그림이다. 이 책은 고목의 추정 나이, 궁중에서 나무의 역할, 얽힌 사연 등을 들려준다. 소실되거나 복원된 궁궐의 변천도 알 수 있다.



**조선과 서양의 풍속화,
시대의 거울**

장혜숙 지음 / 동연 / 3만원

조선 시대에 풍속화가 있었다면, 다른 나라의 어떨까? 동시대의 조선(동양)과 서양에서는 어떤 유사한 사회상, 시대상의 그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그림들을 비교해 감상해보는 특별한 재미를 주는 책이 눈길을 끈다. 이 책은 넓게는 18~19세기의 동서양, 좁게는 조선 후기와 유럽 간 일반 대중의 풍속을 비교한다. 풍부한 그림 자료를 수록해 지루할 틈이 없고, 저자의 설명은 그림을 보면서 미술관을 걷고 있는 기분이다. 이 책에 수록된 조선과 서양의 풍속화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물론이고 농사와 관련된 풍속을 그리고 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소위 중심부에서 비껴난 소시민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 외에도 말을 타고 강을 건너는 모습, 대장간, 바느질, 축제, 우물가, 활쏘는 장면 등 다채로운 문화를 대조해 가며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그림 속에 들어 있는 세세한 장면들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그 재질이나 소재의 문화사적 배경까지 설명하고 있어 단순한 두 세계 그림의 대비를 넘어서고 있다. 같지만 다른 생활상, 그래서 같은 주제이지만 다른 분위기의 그림을 비교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단순한 풍속화 비교를 넘어, 문화의 교차점을 느끼게 한다.

August 2024

(재)부산문화회관 2024 하반기 문화예술아카데미 개강

그동안 다채로운 강좌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가 2024년 하반기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만난다.

9월 3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문화예술아카데미는 지난 상반기 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 기존 수강생들은 물론 당시 수강 기회를 놓쳐 아쉬워했던 시민들도 새롭게 참여할 수 있다.

지난 상반기 아카데미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부산문화회관 윈드 오케스트라'와 '부산문화회관 합창단'은 하반기 아카데미에서도 계속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트롬본 수석 정선화와 서울가톨릭대학교 외래교수이자 전문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바리톤 심정보가 상반기에 이어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이끈다. 더불어 자신만의 레퍼토리를 소화할 수 있는 성악가를 위한 '심정보와 함께하는 가곡 교실'도 하반기 아카데미에서 만날 수 있다.

클래식 기타리스트 고충진과 함께하는 '클래식 기타' 강좌도 입문자를 위한 초급반과 연습곡 연주를 통해 다양한 곡을 익혀보는 중급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또한 타 아카데미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국악기인 가야금, 거문고 실기 강좌도 수준 높은 실력을 갖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의 지도로 만날 수 있다.

무용에서는 발레를 처음 접하는 초급자를 위한 '슬림 업 스트레칭 발레'와 주된 발레 테크닉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리미엄 발레', 그리고 정형화된 무용이 아닌 대상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신체적으로 표현해볼 수 있는 '춤추는 현대무용'이 상반기에 이어 계속된다. 이밖에 미술 강좌로는 김은주 작가가 진행하는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에서 단순 미술 실기수업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한 주제를 원하는 재료로 자유롭게 표현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상반기 아카데미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던 인문·교양 강좌 '영화로 떠나는 인문학'은 영화를 통해 철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영화 속 캐릭터를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강좌로, 안용태 인문학 강사가 강좌를 맡아 매 회차별 다양한 장르의 영화, 그 속에 담긴 철학적 개념을 함께 살펴본다. 이밖에 말보다 선곡이 우선이라고 믿는 음악 칼럼니스트 유혁준과 함께하는 '유혁준의 음악이야기', 자신의 고유한 취향을 담아보는 사진작가 뿌리야 김과 함께하는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도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하반기 아카데미는 오는 9월 3일부터 12월 25일까지 강좌별로 배움터에서 진행된다.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지하 1층에 자리한 배움터는 대규모 레슨실과 연습실, 다목적실 등으로 조성된 시민들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올해 1월부터 아카데미 전용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강 신청은 7월 30일부터 정원 마감 시까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및 전화(051-607-6000)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강의 커리큘럼 및 강사 프로필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7월부터 시립예술단 공연 8회 진행



제금융진흥원-부산문화회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차재근)과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원장이명호)이 7월 12일 문화가 있는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7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 BIFC 로비에서 상주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을 8회 진행한다.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 7월 3일 점심시간, BIFC 1층 로비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4중주팀의 연주회를 진행한 부산문화회관은 공연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BIFC 입주 정책금융기관 임직원 100여 명의 문화적 갈증을 풀어주고, 업무에 지친 일상에 활력을 선사하며 큰 박수를 받았다.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뉴욕, 런던, 도쿄 등 세계 주요 금융도시들이 문화와 예술을 금융중심지의 경쟁력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점에 대비, BIFC 내



5,000명의 상주인구를 위해 부산시립예술단을 비롯한 부산 지역 예술단체들의 다양한 공연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차재근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예술과 금융이 융합된 부산금융중심지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부산시립예술단의 다양한 공연을 통해 부산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립예술단은 7월 25일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현악4중주 공연을 시작으로 교향악단 목관5중주, 국악실내악, 합창 공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공연일정 | 공연내용 |
|----------------|------------|
| 7월 25일(목) | 교향악단 현악4중주 |
| 8월 1일(목)·8일(목) | 교향악단 목관5중주 |
| 8월 14일(수) | 교향악단 현악4중주 |
| 8월 22일(목) | 국악관현악단 실내악 |
| 8월 29일(목) | 교향악단 현악4중주 |
| 9월 5일(목) | 부산시립합창단 |

2024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의 밤 성료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회원들을 위한 ‘후원회의 밤’이 6월 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서 펼쳐졌다.

이날 로비음악회에서는 도용복 회장을 비롯한 후원회원 및 가족 80여 명과 차재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부산문화회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립교향악단 오보에 콰르텟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실내악팀이 출연, 후원회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다.

지난 2018년 1월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발족한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는 그동안 지속적인 후원회원 모집을 통해 후원활동 및 기부문화 조성에 힘써오는 한편,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이 품격높은 문화공간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재) 부산문화회관

2024 하반기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인문감상

인문·교양 - 영화인문학, 음악이야기, 사진학



예술실기

음악실기 - 오케스트라, 가곡, 합창,
거문고, 가야금, 클래식 기타

무용실기 - 발레, 현대무용

미술실기 - 드로잉

신청기간 | 2024. 7. 30.(화)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및 전화접수



수업기간 | 2024. 9. 3.(화) ~ 12. 25.(수)

문 의 | 051-607-6000

※ 자세한 사항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아카데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SCC

P R O G R A M

(재)부산문화회관 2024 하반기 공연프로그램(7월~12월)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로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 시 1,000원 추가 할인

전화예매 | 고객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 | ARS 1번 외국어 문의 | ARS 2번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날 14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날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구분 | 취소수수료 | 비고 |
|--------------------|--------------------|---|
|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 예매마감은 공연 1일전 14시 ※ 취소마감은 공연 1일전 17시 |
| 공연 1일 전~취소마감 17시까지 |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 |
| 취소마감 17시 이후부터 공연당일 | 취소 및 환불 불가 | |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607-6000(ARS 1번)

2024. 7-12월

July - December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 '짚팬'을 위한 렉처 콘서트

미술관 옆 콘서트홀

문화 | 중극장 2024. 7. 19.(금), 9. 6.(금)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미술 해설 | 이주현
 - 음악 해설 | 손지현
 - 연주 |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 ※ 7세 이상 관람



모두가 하나되어 떠나는 판타지 모험!

뮤지컬 <달 샤페트>

문화 | 중극장 2024. 8. 17.(토)-18.(일)

11:00am, 2:00pm, 4:00pm

옥토끼석 60,000원 녹대석 40,000원

- 원작 | 백하나
- ※ 24개월 이상 관람



조선 왕실이 탄생시킨 최고의 걸작

국립국악원 <중묘제례악>

문화 | 대극장 2024. 8. 23.(금) 7:30pm

R석 20,000원 S석 10,000원

※ 8세 이상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김유빈 플루트 리사이틀

문화 | 중극장 2024. 8. 28.(수)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플루트 | 김유빈
 - 피아노 | 김도현
- ※ 7세 이상 관람



푸치니가 가장 사랑한 여인

오페라 <나비부인>

문화 | 대극장 2024. 8. 31.(토)-9. 1.(일) 5:00pm

VIP석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작곡 | G. 푸치니
 - 지휘 | 이병욱
 - 연출 | 김숙영
 - 합창·연주 | 2024년 시즌 부산오페라하우스 합창단·오케스트라
- ※ 7세 이상 관람



오전 11시의 브런치 콘서트

2024 마티네 콘서트 III - 모차르트

문화 | 대극장 2024. 9. 27.(금) 11:00am

전석 20,000원

- 지휘 | 정인혁
 - 소프라노 | 박현진, 손주연
 - 바리톤 | 이광근
 - 첼로 | 홍승아
 - 해설 | 손지현
 - 연주 | 부산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
- ※ 7세 이상 관람



객석을 전율시키는 건반 위 철학의 힘

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

문화 | 챔버홀 2024. 10. 17.(목) 7:30pm

전석 50,000원

※ 7세 이상 관람



10월을 물들이는 낭만적 만남

첵 베이커, 라흐마니노프를 만나다

문화 | 중극장 2024. 10. 19.(토) 5: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7세 이상 관람



어린이 전래동화 뮤지컬

<흑부리 영감과 도깨비>

문화 | 사랑채극장 2024. 10. 22.(화)-12. 6.(금)

평일 10:30am, 토요일 11:00am, 2:00pm

(일·월 휴관) ※ 평일공연은 단체관람(10인 이상)만 가능

전석 20,000원

※ 36개월 이상 관람



2024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첫 국내 투어

압 판 츠베덴&클라라 주미 강 with 서울시립교향악단

문화 | 대극장 2024. 11. 2.(토) 5:00pm

VIP석 90,000원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7세 이상 관람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앙코르

<호두까기 인형> 하이라이트

문화 | 대극장 2024. 12. 7.(토) 5: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5세 이상 관람



연말을 대표하는 최고의 인기 공연!
2024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문화 | 대극장 2024. 12. 15.(일) 4:0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국립현대무용단 지역상생 프로젝트
<수선되는 밤 × 정글>
시민 | 대극장 2024. 9. 21.(토) 5:0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7세 이상 관람



볼수록 추천하고 싶어지는 단 하나의 두드림!
2024 난타 크리스마스 특별 부산공연
문화 | 중극장 2024. 12. 20.(금)-12. 25.(수)
 평일 7:30pm, 주말 3:00pm, 6:00pm,
 크리스마스 3:00pm
 ※ 36개월 이상 관람



뱀파이어와 인간의 만남을 그린 창작 뮤지컬
뮤지컬 <배니상>
시민 | 대극장 2024. 10. 19.(토) 2:00pm, 6:00pm
 R석 66,000원 S석 44,000원
 ※ 13세 이상 관람



2024 (제)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4. 12. 24.(화) 7:30pm
 VIP석 120,000원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A석 60,000원
 • 바이올린 | 사라 장
 ※ 7세 이상 관람



2021 제42회 서울연극제 공식선정작
연극 <이단자들>
시민 | 소극장 2024. 10. 25.(금) 7:30pm
 10. 26.(토) 2: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10세 이상 관람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나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뮤지컬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시민 | 소극장 2024. 11. 2.(토) 2:00pm, 6:00pm
 11. 3.(일) 2: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10세 이상 관람



부산시민회관

동화의 감동과 발레의 우아함이 환상적으로 그려진 명작발레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시민 | 대극장 2024. 7. 12.(금) 7:30pm, 7. 13.(토) 2:00pm
 VIP석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5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순수'로 돌아가 '나'를 마주하다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시민 | 대극장 2024. 11. 22.(금) 7:30pm
 VIP석 80,000원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독보적 감성의 로이킴과 행복을 노래하는 소란의 So Romantic한 만남
로이킴&소란
시민 | 대극장 2024. 7. 27.(토) 5:00pm
 VIP석 121,000원 R석 99,000원 S석 88,000원 A석 66,000원
 ※ 7세 이상 관람



국립정동극장 연극시리즈
연극 <더 드레서>
시민 | 대극장 2024. 12. 6.(금) 7:30pm
 12. 7.(토) 2:00pm
 R석 55,000원 S석 33,000원
 ※ 11세 이상 관람



매혹적인 퍼포먼스로 눈과 귀를 사로잡는 현악 5중주
유럽의 대표 재즈현악5중주 <볼로시>
시민 | 대극장 2024. 8. 17.(토) 5:0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최고의 연주자들이 모인 수준높은 실내악 공연
**스타즈 온 스테이지 - 리처드 용재 오닐,
 양인모, 장유진, 문태국, 김길우**
시민 | 대극장 2024. 12. 27.(금) 7:30pm
 VIP석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7세 이상 관람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4. 8. 23(금) 9:00pm

- 지휘 | 백승현
- 반도네온 | 고상지



제12대 홍석원 예술감독 취임 기념 제612회 정기연주회 (2024 제15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IV) Prélude

문화 | 대극장 2024. 9. 6(금) 7:30pm

- 지휘 | 홍석원
- 피아노 | 알렉산더 코르산티아



제613회 정기연주회 Romantic

문화 | 대극장 2024. 10. 1(화) 7:30pm

- 지휘 | 홍석원
- 바이올린 | 김재영



제614회 정기연주회 England

문화 | 대극장 2024. 11. 7(목) 7:30pm

- 지휘 | 홍석원
- 첼로 | 이상은



제615회 정기연주회 Auferstehung

문화 | 대극장 2024. 12. 20(금) 7:30pm

- 지휘 | 홍석원
- 소프라노 | 박소영
- 메조소프라노 | 양송미
- 합창 |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2024 SUMMER FANTASY <퀸 심포니>

시민 | 대극장 2024. 7. 23(화) 7:30pm

- 지휘 | 임희준
- 연주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합창 | 경성콘서트콰이어, 동아대학교 합창단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5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4. 10. 29(화)-10. 31(목) 7:00pm

- 지휘 | 이기선



특별연주회 현대합창 시리즈 5 <현대합창의 밤>

문화 | 대극장 2024. 11. 1(금) 7:30pm

- 지휘 | 이기선



제194회 정기연주회 현대 오라토리오 <The Ordering of Moses>

문화 | 대극장 2024. 12. 5(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협연 | 박은주(소프라노), 김효종(테너), 장정권(카운터 테너), 사무엘 윤(베이스 바리톤)
- 연주 | United Korean Orchestra



부산시립무용단

제90회 정기공연 춤 본색

문화 | 대극장 2024. 10. 25(금) 7:30pm

- 26(토) 3:00pm
- 1부 용호상박 / 2부 청아청아
- 안무 | 이정윤



특별공연 안무가육성프로젝트 <홀로홀춤>

문화 | 중극장 2024. 12. 13(금) 7:30pm

- 14(토) 3:00pm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26회 정기연주회 청춘 歌樂

문화 | 중극장 2024. 9. 7(토) 5:00pm

- 지휘 | 이동훈



제227회 정기연주회 우리 음악의 거장 [박범훈]

문화 | 대극장 2024. 10. 18(금) 7:30pm

- 객원지휘 | 박범훈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

세종문화회관 | M씨어터 | 2024. 10. 25(금) 7:3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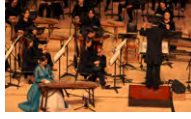
- 지휘 | 이동훈



제49회 청소년 협연의 밤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문화 | 중극장 | 2024. 11. 26(화) 7:30pm

- 지휘 | 김경수



제228회 정기연주회 2024 송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 2024. 12. 18(수) 7:30pm

- 지휘 | 이동훈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신데렐라: 너의 뜻대로

문화 | 사랑채극장 | 2024. 9. 7(토)-10. 12(토)

화-금요일 11:30am(단체공연, 공휴일 제외)
9. 7(토), 9. 21(토), 9. 28(토), 10. 3(목), 10. 5(토), 10. 9(수)

10. 12(토) 11:00am, 2:00pm(일반공연)

- 대본 | 김영화
- 연출 | 김지용



제78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베르톨트 브레히트 코카서스의 백묵원

시민 | 소극장 | 2024. 11. 15(금) 7:30pm, 11. 16(토) 5:00pm

- 원작 | 베르톨트 브레히트
- 객원연출 | 강태욱



제78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베르톨트 브레히트 사천의 선인

시민 | 소극장 | 2024. 11. 22(금) 7:30pm, 11. 23(토) 5:00pm

- 원작 | 베르톨트 브레히트
- 객원연출 | 양지웅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토르오페라 <마술피리>

문화 | 대극장 | 2024. 7. 4(목)-5(금) 10:30am, 2:00pm

- 지휘 | 백승현
- 연출, 해설 | 이의주



제74회 정기연주회 오르간

문화 | 대극장 | 2024. 9. 10(화) 7:30pm

- 지휘 | 백승현
- 협연 | 하유나(바이올린), 허예은(첼로), 박준호(오르간)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문화 | 대극장 | 2024. 10. 5(토) 5:00pm



제75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 2024. 12. 10(화) 7:30pm

- 지휘 | 백승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4회 정기연주회 천사들의 노래

문화 | 중극장 | 2024. 9. 7(토) 5:00pm

- 지휘 | 천경필
- 특별출연 | 박은주(소프라노), 수영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 김태경)



특별연주회 제35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 2024. 11. 8(금)-9(토)

- 금요일 7:30pm, 토요일 5:00pm
- 지휘 | 천경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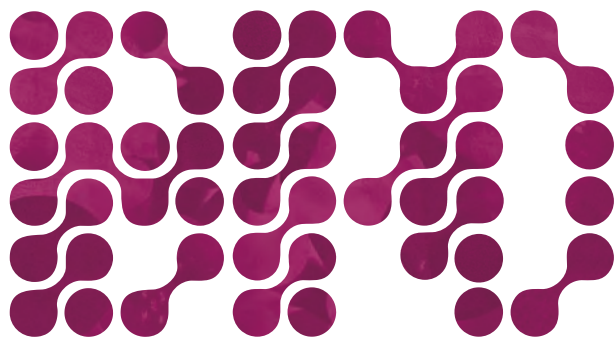


제165회 정기연주회 크리스마스 파티

문화 | 대극장 | 2024. 12. 14(토) 5:00pm

- 지휘 | 천경필





2024년
부산시립교향악단
하반기 정기연주회

BPO
SYMPHONIC SEASON
2024



예술감독 홍석원
Seokwon Hong,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612

홍석원 예술감독 취임 연주회

Prélude

(2024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IV)

9월 6일 금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홍석원

피아노 알렉산더 코르산티아

Program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
R.슈트라우스 / “장미의 기사” 모음곡
리스트 / 교향시 제3번 “전주곡”



613

브루크너 탄생 200주년 기념

Romantic

10월 1일 화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홍석원

바이올린 김재영



Program

브루흐 /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브루크너 / 교향곡 제4번 “로맨틱”



614 England

11월 7일 목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홍석원

첼로 이상은

Program

엘가 / 첼로 협주곡
드보르자크 / 교향곡 제8번



615

BPO's Mahler Series

Auferstehung

12월 20일 금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홍석원

소프라노 박소영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Program

말러 / 교향곡 제2번 “부활”

MEMBERSHIP GUIDE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가입신청

(재)부산문화회관 051) 607-60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 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입장권 구입 시 불가능)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 (20%),

50명 이상 (30%)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VIP



연회비 10만원

초대권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 여파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연회비 5만원

초대권 4매(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MEMBER



연회비 3만원

초대권 2매(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정기(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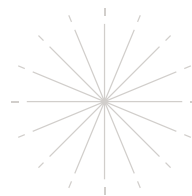
가입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 607-60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 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취소 불가능)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연극 <갈림길에 선 여자> **종료**

2024년 6월 22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2024 마티네 콘서트 II - 푸치니 **종료**

2024년 6월 28일(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루돌프 부흐빈더&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종료**

2024년 6월 29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20매)

미술관 옆 콘서트홀

2024년 7월 19일(금) **종료**
9월 6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유럽의 대표 재즈현악5중주 <볼로시> **종료**

2024년 8월 17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

2024년 8월 23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40매)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됩니다. 게재된 공연은 2024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오페라 <나비부인> 종료

2024년 8월 31일(토)-9월 1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40매)

국립현대무용단 <수선되는 밤 × 정글>

2024년 9월 21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2024 마티네 콘서트 III - 모차르트

2024년 9월 27일(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뮤지컬 <배니싱> 종료

2024년 10월 19일(토) 오후 2:00, 오후 6: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연극 <이단자들>

2024년 10월 25일(금) 오후 7:30, 10월 26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 종료

2024년 10월 17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20매)

첵 베이커, 라흐마니노프를 만나다 종료

2024년 10월 19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뮤지컬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종료

2024년 11월 2일(토) 오후 2:00, 오후 6:00
11월 3일(일)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압 판 츠베덴&클라라 주미 강 with 서울시립교향악단 종료

2024년 11월 2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카카오게임즈 게임OST페스티벌 *공연 취소

2024년 11월 1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종료

2024년 11월 22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연극 <더 드레서> 종료

2024년 12월 6일(금) 오후 7:30, 12월 7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앙코르
<호두까기 인형> 하이라이트**

2024년 12월 7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2024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종료

2024년 12월 15일(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2024 (재)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종료**

2024년 12월 24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20매)

스타즈 온 스테이지

-리처드 용재 오닐, 양인모, 장유진, 문태국, 김길우 종료

2024년 12월 27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문화예술팀(051-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명예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자문위원



권흥사
(주)반도건설



김창환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이근철
(주)삼정 이사장



이용흠
(주)일신설계 회장



이원우
한성테크(주) 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최삼섭
(주)대원플러스그룹 회장

* 부 회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손명진
(전)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여성회장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조흥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임말섭 (주)미성하이텍

임현숙 사상은누리약국

*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대표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 VIP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명
-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 구분 | 가입비 | 연회비 (익년도부터) | 법인/ 개인 |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 | 아카 데미 | 좌석 네이밍 (대극장) |
|----------|-----------|----------------|-----------|--|------------------------------------|------------------|--------------------|
| | | | | 기획공연(연간) | 전시 | | |
| 부회 장 | 500 이상 | 200 | 법인/ 개인 |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 본인· 배우자 무료 | 본인· 배우자 무료 | 2개 좌석 |
| 이사 회원 | 300 | 100 | |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 본인 50% 할인 | |
| 일반 회원 | 100 | 50 | 개인 |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 |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 본인 10% 할인 | 1개 좌석 |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팀(607-6052)

- 김흥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 신한춘 (주)금정화은 대표이사
-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 이수영 (주)유한 대표이사
- 이은석 (주)엘제이이엔에스 대표이사
-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 정문홍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 일반회원

-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 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
-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 김진홍 동우개발(주) 회장
-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 문민우 명인제약
-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 박흥근 삼강종합건설(주)
- 성원기 하나유치원 원장
- 안금주 경성대학교 교수
- 안진우 세무법인 인성
- 양은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 이경철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 이상수 엘가 대표
- 이성임 굿엔프랜즈주식회사
- 이수민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 이애리카정애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 이현숙 임은자
- 정명선 (사)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 정의화 (전)국회의장
- 조성락 숙편한내과 원장
- 조종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 허혜영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 회원명 가나다순

부산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Green Harmony

지구를 살리기 위한 환경 캠페인
Green Harmony에 화음을 쌓아주세요!!

개개인의 사소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환경을 위해 만들어가는 Green Harmony
매월 캠페인에 참여하여 지구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캠페인 참여 주제

8월 에너지의 날 공연관람 후 대중교통 이용 > 공연티켓+대중교통 이용인증 게시물

9월 푸른 하늘의 날 대기오염 저감활동 > 권기 인증 게시물
파란하늘 그리기 캠페인 > 아이 참여 장려

10월 산의 날 클린산행 > 플로깅 인증 게시물

참여기간 매월 5일~30일

참여방법 개인 SNS 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에 캠페인 인증 게시물 업로드

* 업로드 시 #부산문화회관환경캠페인 #그린하모니 #GreenHarmony
#기후위기대응캠페인 해시태그 필수!



* 월별로 캠페인에 참여하신 시민들 중 무작위로 추첨(15명)하여 커피 기프티콘 드립니다.

<예술의초대>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 <예술의초대>는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구독가능합니다. 정기회원이 아닌 경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비롯 금정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등 區 문화회관, 그리고 서면 영광도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 <예술의초대>에 공연·전시·행사 일정을 게재하려면 **전월 15일까지** 관련 내용 및 사진(포스터)을 E-mail(book2580@bscc.or.kr)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단, 부산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전시·행사에 한해 가능합니다.
- ★ <예술의초대>에서는 매월 유료 지면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료광고 게재를 원하시면 홍보 마케팅팀(607-6045)으로 문의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뉴스레터 낱말퍼즐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퍼즐풀기 60



- 참여기간 : 2024. 7. 25.(목)~8. 14.(수)
- 정답 및 당첨 발표 : 2024. 8. 21.(수)
- ※ 정답 및 당첨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월간지 <예술의초대> 지면을 통해 발표됩니다.
- ※ 기프티콘은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2024년 7월호 낱말퍼즐 정답 및 당첨자

당첨자

010-****-2043 010-****-4610
010-****-4506 010-****-2362
010-****-2494

※ 기프티콘은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 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재)부산문화회관



@배시시TV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COUPON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당일 \$100 이상 구매시, 1만원 면세포인트 증정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사은정책 적용

증정 기간 : 2024. 8. 31까지
증정 장소 : 부산점 고객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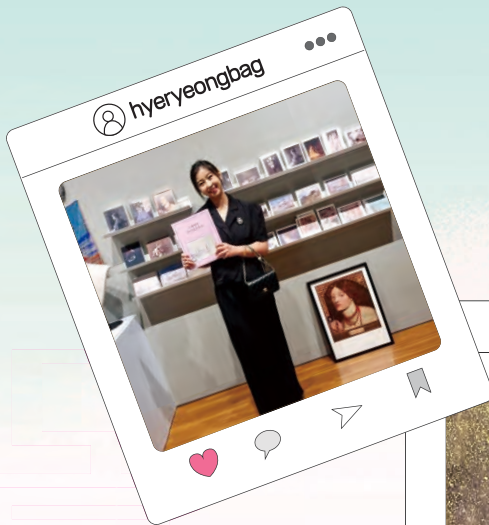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방문 인증 당첨자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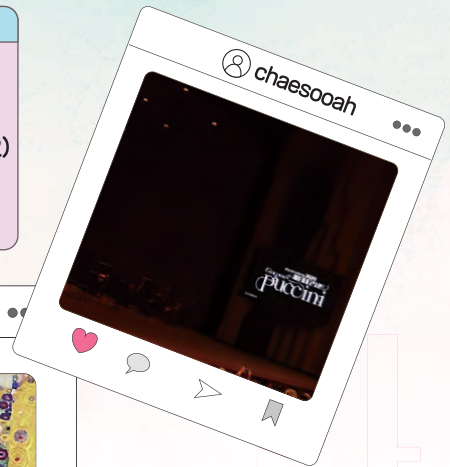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 올려주시면
매월 5명 추첨을 통해 예술의초대에 사진 게재 및 소정의 상품(1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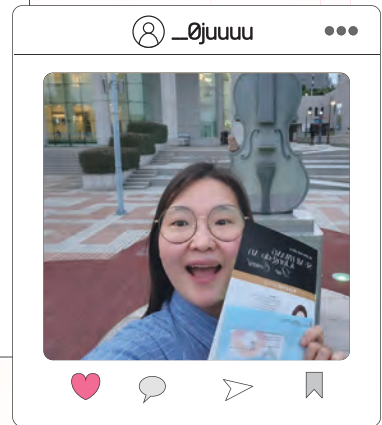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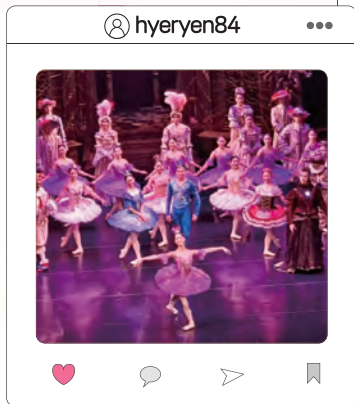
8월 이벤트 필수 해시태그

#부산문화회관_다녀왔어요
(또는 #부산시민회관_다녀왔어요)

#예술의초대_9월호



minie165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 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명합니다.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4회 정기연주회

Song of Angels

천사들의 노래



수석지휘자 천경필



소프라노 박은주



지휘 김태경



수영구소년소녀합창단



2024. 9. 7.(토)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BPO Night Lab

2024. 8. 23. FRI 9:0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Busan Cultural Center

그리그 · 아니트라 의 춤
E. Grieg · 'Anitra's Dance' from Peer Gynt Suite No. 1

바흐 · 관현악 모음곡 제1번
J. S. Bach · Orchestral Suite No. 1 in C major, BWV 1066

피아졸라 · 반도네온 협주곡 "아콩카과"
A. Piazzolla · Aconcagua; Concerto for Bandoneon

연 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백승현 Seung Hyun Baek, Conductor

반도네온 고상지 Koh Sangji, Bandoneon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전석 10,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6000(ARS 1번)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4회 정기연주회

브람스 Johannes Brahms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협주곡, 작품번호 102
Concerto for Violin and Cello, Op.102

생상스 Camille Saint-Saëns

교향곡 제3번, 작품번호 78 “오르간”
Symphony No.3, Op.78 “Organ”

연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지휘 백승현 | 바이올린 하유나 | 첼로 허예은 | 오르간 박준호

2024. 9. 10. 화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Busan
is good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뇌과학자 정재승

8.31.(토) 15:00

인공지능 시대, 미래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공연 비올라 황여진 | 피아노 박민선

2024 (재)부산문화회관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석 3만원 | S석 2만원

예매 및 문의

www.bscc.or.kr 051-607-6000

입장연령

초등학생 이상

주최 | 주관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HARLEQUIN
KI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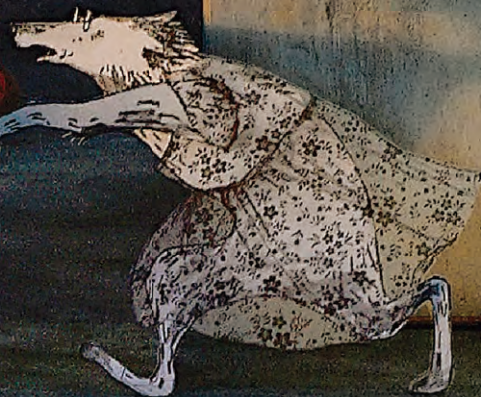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다
리
샤
베
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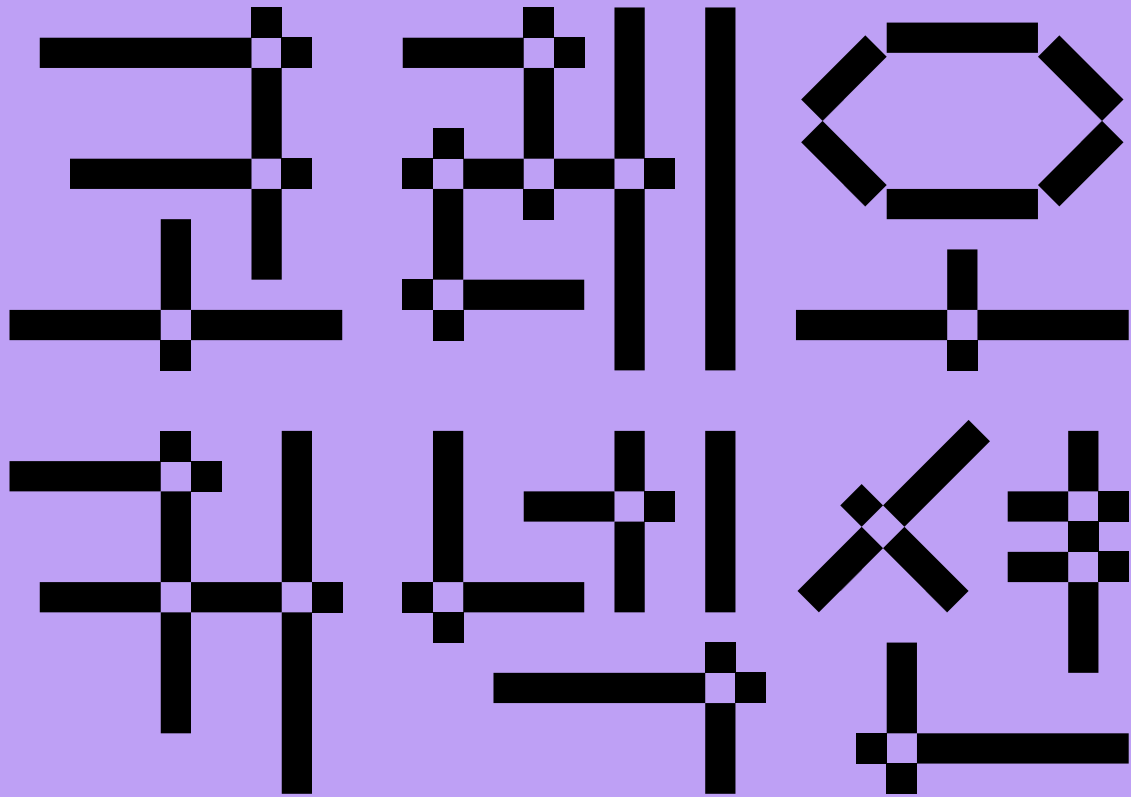
박지현 작가



2024.8.17(토) ~ 8.1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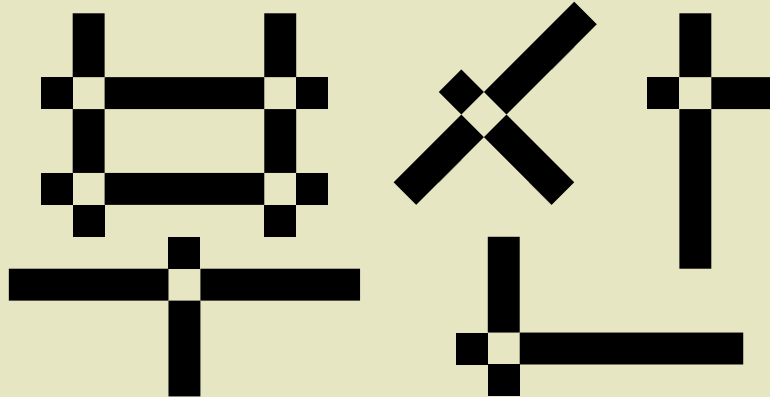
국립현대무용단 지역상생 프로젝트 Choreo-Connection



수선되는 밤
안무 박재현

정글
안무 김성용 예술감독

국립현대무용단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2024.9.21 토 5PM

예매
부산시민회관 www.bscc.or.kr 051-607-6000
인터파크 tickets.interpark.com 1544-1555